

열람용
(특별 열람실)

국통정79-12-1597

韓國消費經濟体制가 青少年 意識形成 및
生活에 미치는 效果研究

보관용
(관리과)

Consumer-Society and its Impact on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國土統一院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韓國消費經濟体制가 青少年 意識形成 및 生活에 미치는 效果研究

Consumer-Society and its Impact on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研究執筆責任



(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卒業 (1963)

英國 York 대학교 대학원 經濟學博士 (1968)

英國 York 대학교 經濟學科教授 (1966~68)

英國 Cambridge 대학교 應用經濟學科教授 (1968~70)

Jordan政府 財政顧問 (1974~76)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教授 (1971년 以後 現在)

刊行責任 李 捧 喆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院

目 次

1. 머릿말	3
2. 消費需要側面의 考察	5
2. 1 消費水準 및 構造의 變化	5
2. 2 消費決定의 理論	19
3. 耐久消費財의 供給	21
3. 1 耐久消費財産業의 定義	21
3. 2 家庭用 電氣機器	21
3. 3 家庭用 電子機器	26
3. 4 乘用車	31
4. 大量消費時代의 青少年	37
5. 맺음말	46
6. 參考文獻	55
7. 註	58
8. 英文要約	62

1. 머릿말

第1次5個年經濟計劃이 실시된 1962년부터 1978년까지 韓國經濟는 年平均 約 10%의 成長率을 記錄하였다. 이렇게 高度의 經濟成長은 消費生活와 消費構造에 적지 않은 影響을 끼쳤다. 一般적으로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食料品の 比重과 基本的 生計費의 比重을 減少하고 雜費등의 比重이 漸增하게 된다.

특히 大量消費時代に 이르면 耐久消費財의 比重이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耐久消費財의 所得彈力性은 매우 彈力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耐久消費財의 需要는 이러한 財源을 즐길수 있는 余暇에 대한 需要를 誘發하여 時間을 節約시키는 各種 서어비스部門이 발달하게 된다.

本稿는 이와같이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變化하는 消費構造를 추적하고 消費財 生産을 把握하여 大量消費時代の 特徵을 糾明하고 消費를 助長시키는 여러가지 要因을 나열하고 이러한 經濟現狀이 靑少年들의 意識生活 形成에 미치는 影響을 研究하여 統一後繼世代들이 市場經濟体制의 틀안에서 어떻게 民族主義的 要求를 調和시킬 수 있느냐 하는 問題를 다루고자 한다.

本 論文은 우선 第2章에서 消費水準과 消費構造, 消費의 決定理論 그리고 消費選擇에 있어서 여러가지 效果등 主로 消費需要의 側面을 分析하고 있다.

第3章은 消費財 供給의 側面에서 問題를 接近하고 있다. 특히

大量消費時代의 象徴이라고 할 수 있는 耐久消費財 生産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論文의 범위를 좁히고자 하고 있다.

第4章은 大量消費時代의 여러가지 經濟的 狀況이 靑少年의 意識 生活 形成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이냐 하는 可能性에 대한 糾明을 試圖하고 있다.

第5章은 結論 部分이다. 여기서는 可能한 한 統一後繼世代인 靑少年들이 市場經濟體制를 그대로 維持해가면서 西歐式 大量消費社會가 어떻게 民族的 要請에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만일 그러한 經濟條件과 民族主義 要求間에 괴리가 생긴다면 消費經濟의 調節을 통하여 이 問題를 調和시킬 수 있는 方案이 없는가를 研究하여 統一後繼世代들에게 可能한 代案을 提示해 보고자 努力할 것이다.

이 研究는 消費와 關聯되는 諸盤 統計資料를 利用하고 있으나 分析보다는 敘述에 重點을 두고자 하고 있다.

2. 消費需要側面의 考察

2.1 消費水準 및 構造의 變化

國民經濟가 成長하여 가는 過程에서 産業構造가 적지않게 變化하는 것은 自명한 일이다. 經濟成長의 速度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러한 變化도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비록 이러한 變化를 政府가 意圖적으로 計劃하여 유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混合經濟體制의 發展過程에서 自然發生的으로 나타나게 經驗的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¹⁾

Colin Clark는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就業勞動人口의 比率은 第1次産業에서 第2次産業으로 그리고 다시 그것은 第2次로부터 第3次産業으로 比重이 移動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産業構造가 變化하여 가는 것은 經濟가 發展하는데 따라서 함께 生産性的 變化가 供給의 側面에서 일어나고 消費패턴의 變化가 需要의 側面에서 나타나는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國民所得中에서 消費와 投資中 需要要素는 産業構造를 決定하는 重要な 因子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消費需要의 變遷은 적지 않은 影響을 끼치고 있다.

一般的으로 經濟發展이 이루어짐에 따라 第1次産業 生産品인 主食인 農産物에 대한 需要의 比重이 격감하고 第2次産業 生産品은 飽和狀態에 이르며 第3次産業에서 生産되는 生産品의 需要比重이 急增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²⁾ 이와 같은 傾向은 자연히 産業

構造의 比重이 第1次에서 第2次를 거쳐 第3次에 옮겨가도록 하는 主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耐久消費財를 中心으로 나타나는 第2次産業 製品의 大量消費의 現象이 나타나고 余暇나 서비스産業等 第3次産業에의 需要가 集中하게 된다.

W. Rostow는 그의 「經濟成長의 諸段階」에서 모든 社會는 傳統 社會를 거쳐 跳躍에의 準備段階, 跳躍段階, 完熟段階에의 到達 그리고 大量消費時代의 順序로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³⁾ 그는 大量消費時代의 特徵은 國民經濟의 先導産業은 耐久消費財 産業과 서비스部門이 담당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段階에 이르르면 그 社會는 現代技術의 發展을 社會의 目標로 삼기 보다는 오히려 社會保障과 福祉에 社會資源을 더 投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福祉國家의 出現과 더불어 社會的 生産力은 점점 耐久消費財의 生産과 서비스의 擴大를 大規模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消費者 主權이 確立된 社會의 正常的 現狀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美國의 境遇 大量消費時代に 돌입한 것은 Henry Ford의 一貫作業工場이 설치된 1913~14年일 것이지만 그후 1920年代 그리고 1946~56年間の 戰後期間에 더욱 현격히 擴張되었고 西歐先進國과 日本도 1950年代에 이르러 모두 大量消費時代に 돌입하였다는 것이다.⁴⁾

한가지 有意할 사실은 經濟가 完熟段階를 지나서 國家的 富가 蓄積될 때 이러한 資源에 대한 競爭的 需要가 세가지 側面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첫째 國家는 對外的으로 強國이 되기 爲하여

軍事 및 外交政策 遂行에 資源을 좀더 配分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는 國家資源을 所得을 衡平하게 分配하고 누구나 最低生活을 즐길 수 있는 福祉國家의 建設에 配分할 수도 있을 것이다. 市場메카니즘은 이러한 所得再分配 機能을 衡平스럽게 이루어 갈 수 없으므로 자연히 國家의 개입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完熟段階에서 이룩한 成果를 消費水準의 擴大에 配分하는 것이다. 이것은 最低生計에 必要한 衣食住가 充足되면 이에 끝이지 않고 더 좋은 衣服과 飲食, 더 훌륭한 住宅에 資源을 配分하고 生活을 安樂하게 해주는 耐久消費財에 投入하는 것을 말한다. Rostow는 어느 社會든지 이러한 對案의 選擇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示唆하고 있다.⁵⁾

一般的으로 所得의 彈力성이 낮은 生活必須品의 需要는 增加하지 않고,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所得의 彈力성이 높은 耐久消費財의 需要는 急増하도록 되는 것이 跳躍段階를 벗어난 國民經濟가 大衆消費段階로 돌입할 때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耐久消費財를 消費하고자 할 때 必要한 것은 이것들을 즐길 수 있는 余暇이며 이러한 余暇는 주어진 時間을 節約함으로써만 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耐久消費財等 第2次産業의 產品을 消費하고 즐기기 위하여 時間을 節約해 주는 各種 서어비스가 生成發展하기 시작하게 되며, 第3次産業은 急成長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第2次産業의 發展은 技術進歩에 따라 더욱 促進되고 耐久消費財를 둘러싼 이러한 産業이 發展될수록 서어비스의 需要는 더욱 擴大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消費構造에 신속히 對應하는 企業과 産業은 더

속 급성장하게 되며 따라서 産業構造는 繼統的인 變化過程을 거쳐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되는 것이다.

第2次産業의 技術革新은 劃一主義에서 脫退하여 人間이 技術과 機械에 依속되는 第2次産業 勞動者의 數도 減少하며 人間の 個人主義化, 余暇의 追求, 知的 活動에의 專念등 現代生活은 高度의 서 어비스를 指向하는 經濟生活化하게 되는 傾向이 深化될 것이다.

그러면 韓國의 産業構造와 消費構造는 어떠한 關聯을 맺으며 變化하여 왔는가? 1961年以來 年平均 10%의 經濟成長을 持續하여 온 韓國經濟는 1961年에 農林·水産部門이 40.2%, 鉦工業部門이 15.2%, 그리고 社会間接資本 및 서어비스部門이 44.6%를 占하는 産業構造를 지니고 있었다(모두 經常價格으로 表示된 産業別 國民總生産에서 計算된 比率임). 1970년에 이르러 이러한 構造는 다시 變化하여 農林·水産部門이 28%, 鉦工業部門이 22.8%, 그리고 社会間接資本 및 서어비스部門이 49.2%를 나타내었고 1978년에 이르러서는 農林·水産部門이 23.3%, 鉦工業部門이 29.8% 그리고 社会間接資本 및 서어비스部門이 46.2%를 보여주고 있다. (附錄 1 參照)

이처럼 韓國의 경우에도 Fourastie 등이 提示하였던 假說의 一部인 第1次産業의 比重이 減少한 것은 사실이지만 第3次産業의 擴大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韓國經濟가 아직 도 大衆消費體制에 完全히 도입할 수 있는 工業化段階의 以前에 있음을 暗示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韓國經濟의 工業化가 좀더 推

2
차
권

進될 것으로 예상되는 1991年을 展望하더라도 第1次産業의 比重은 繼續 떨어져 8.1%에 이를 것이나 第2次産業은 繼續 增加하여 44.4% 그리고 第3次産業은 47.5%로 豫測되고 있다.⁶⁾

한편 國民總生産에 대한 支出構造를 살펴보면 1961年에 消費支出의 比重은 96.1%였고 1970年에는 83.7% 그리고 1978年에 이르러서는 74%로 繼續 減少되어 왔고 1991年에 63.4%로 展望되고 있다. (附錄2 參照)

國民總生産이 10.7%의 成長率을 記錄한 1967~76年間 消費支出은 8.4%의 增加率을 보였고 10.2%의 經濟成長率을 展望한 1977~81年間 消費支出은 7.9%, 經濟成長率이 10%로 展望되는 1982~91年間 消費支出은 9.2%로 消費支出率의 增加가 예상되도록 展望한 것은 매우 興味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大衆消費時代의 面모를 갖추게 될 韓國經濟像을 展望하고 이에 부응하도록 消費生活에서 오는 支出活動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附錄3 參照)

이러한 消費率의 變化를 國際比較하여 보면 韓國이 消費率 뿐만 아니라 消費增加率도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5年 現在 台灣의 消費率 (消費의 對GNP比率)은 74.7%, 日本이 67.9%, 필리핀이 78.0%, 泰國이 77.3%이며 韓國은 81.9%를 보여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은 消費率은 1967年以後 繼續 韓國이 首位를 보이고 있다.

또한 消費增加率을 보더라도 韓國의 경우는 1974~75年間に 6.6%가 增加하여 1.8%였던 日本, 2.2%였던 台灣과 좋은 对照

<表 1> 消費率 및 消費增加率의 國際比較

單位：%

年度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台灣						77.4	77.3	75.7	74.2	71.7	69.9	67.0	69.9	74.7
日本	7.7	4.8	10.0	7.7	8.8	9.0	7.8	7.3	6.8	6.9	8.4	8.2	2.2	
韓國	98.4	93.8	92.6	92.5	88.1	88.0	86.3	82.5	83.7	35.5	85.0	77.9	80.8	81.9
菲律賓	6.4	3.8	5.4	6.7	7.2	8.9	10.6	10.3	10.0	10.4	6.7	7.9	6.6	
泰國	5.0	4.4	4.0	4.9	4.6	4.7	4.1	5.2	1.8	4.7	4.1	6.7		
			6.5	7.3	8.8	7.9	8.4	6.3	7.6	4.6	5.4	4.7		

註：上段은 消費率을, 下段은 消費增加率을 各各 表示함.

資料：韓國의 消費率은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5에서 引用, 其他國의 그것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December 1974 and December 1976에서 計算, 消費增加率은 韓國銀行 調查部, 主要國의 GNP指標 1976.4.30에서 引用, 辺衡尹·金潤煥編, 韓國經濟論(裕豐出版社, 1972), p.682.

를 보이고 있다. <表1>

이와 같이 增加率도 빠르고 消費率도 높은 韓國의 民間消費支出의 構成을 살펴본다면 1962年 食料品の 比重은 59.6%이던 것이 1967년에는 56.3%, 1972년에 49.3%, 1977년에 42.7% 그리고 1978년에 40.1%로 繼續 下落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食料品 支出에 압도되어 恩賜係數가 높았던 後進的 消費패턴은 점점 消滅하여 가고 이제는 다른 消費支出의 比重이 높아져 가면서 先進型 消費패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飲料의 比重은 1962年の 2.9%에서 1970年 4.2%로 그리고 1978년에 7.5%로 增加하여 가장 消費增加率이 빠른 品目으로 나타나 있다. 煙草의 경우도 1962年 1.8%에서 1978년에 4.0%로 增加하였다.

1962年과 1978年을 比較하여 볼 때 家具 및 施設費에 대한 消費支出 比重이 1.4%에서 5.8%, 保健美容費가 3.8%에서 6.5%, 交通通信費가 3.3%에서 9.1%, 遊興 및 娛樂費가 3.6%에서 5.4%로 比較的 크게 增加하였다. 雜支出은 2.6%에서 3.7%, 衣類 및 裝身具는 9.6%에서 10.5%로 약간 增加하였고 家計運營費는 1%로 變化가 없으며 賃貸料와 水道料는 6.2%에서 3.9% 그리고 光熱費는 4.2%에서 3.9%로 各各 減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各 品目別 所得彈力性의 測定에도 잘 나타나 있다. 即 食料品 消費에 대한 所得彈力性은 0.54로 매우 낮으며

清凉飲料와 알콜飲料의 所得彈力性은 各各 4.26과 3.3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耐久消費財에 대한 所得彈力性도 1.73으로 높게 測定되어 있고 住居費는 1.29, 光熱費는 0.70, 被服費는 1.56, 雜費는 1.35, 教育費는 1.61로 各各 測定되었다.⁷⁾

耐久財의 境遇 所得彈力性을 國際比較하여 볼 때 美國을 除外한 西歐의 모든 나라들은 彈力性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英國은 3.3으로 首位이고 2.0以上을 능가하는 나라들도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벨지움, 덴마크, 늘웨이, 스웨덴 그리고 아일랜드등이 있고 캐나다, 룩셈부르크 그리고 그리스는 2.0보다 낮으며 美國은 非彈力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⁸⁾ (附錄4 參照)

職業別로 計算된 耐久財 消費의 支出彈力性은 公務員이 2.4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一般事務員으로 2.28, 商人이 2.08, 技能勞務者가 1.83, 管理經營者가 1.71 그리고 自由勞務者가 1.50의 順으로 彈力性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⁹⁾

1977年 年齡層別 消費構造를 살펴본다면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耐久消費財에 所得의 比重이 가장 높은 層은 25~29歲層으로 所得의 5.7%를 耐久財 需要에 할당하고 있으며 30~34歲層은 5.5%, 35~39歲層은 5.1%, 그리고 24歲以下 層이 4.7%로 높은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

反面에 40歲以下의 階層에서는 相對적으로 적게 所得이 耐久消費財의 支出에 充當되고 있는데 40~44歲層이 3.9%, 35歲以上

<表 2>

民間消費支出の構成

1975年 不変市場価格

	計	食料品	食料	煙草	衣類及装身具	賃料及水道料	光熱費
	Total	Foods	Beverages	Tobacco	Clothing & Other personal Effects	Rent and Water Charges	Fuel & Light
II. 構成比 Percentage							
1962	100.0	59.6	2.9	1.8	9.6	6.2	4.2
1963	100.0	57.5	2.7	1.9	9.4	6.2	5.1
1964	100.0	60.3	2.3	2.0	8.0	5.9	4.8
1965	100.0	59.5	2.6	2.5	8.4	5.7	4.5
1966	100.0	58.5	2.8	2.8	7.9	5.6	4.9
1967	100.0	56.3	3.1	3.2	8.5	5.3	4.4
1968	100.0	54.6	3.1	3.3	8.5	5.1	4.2
1969	100.0	53.4	3.6	3.2	8.8	5.0	4.2
1970	100.0	51.8	4.2	3.6	9.2	4.8	4.3
1971	100.0	49.7	4.8	3.7	10.0	4.6	4.2
1972	100.0	49.3	4.5	4.0	10.4	4.5	4.0
1973	100.0	48.0	5.0	3.7	11.1	4.3	4.0
1974	100.0	46.2	5.3	4.1	10.9	4.2	4.0
1975	100.0	45.0	5.7	4.2	10.8	4.1	4.0
1976	100.0	44.1	5.9	4.1	11.0	4.1	3.9
1977	100.0	42.7	6.2	4.2	10.7	4.0	4.0
1978	100.0	40.1	7.5	4.0	10.5	3.9	3.9

資料：韓国銀行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1979), p.38.

At 1975 constant market prices

光熱費	家具及施設費	家計運営費	保健美容費	交通及通信費	遊興及娛樂費	雜支出	(控除)非居住者純支出 (Less) Net Expenditure of Nonresidents in the Country
Fuel & Light	Furniture & Household Equipment	Household Operation	Personal Care & Health Expenses	Trans., & Communication	Recreation & Entertainment	Miscellaneous services	
4.2	1.4	1.0	3.8	3.3	3.6	2.6	0.0
5.1	1.5	1.0	4.5	3.8	3.7	2.7	0.0
4.8	1.4	1.0	3.6	4.2	3.7	2.8	0.0
4.5	1.4	0.9	3.4	4.4	4.1	2.7	0.1
4.9	1.7	0.8	3.5	4.6	4.2	2.9	0.2
4.4	2.1	0.9	3.7	4.9	4.6	3.2	0.2
4.2	2.2	0.9	4.3	5.5	4.9	3.6	0.2
4.2	2.3	0.9	4.2	5.9	5.0	3.7	0.2
4.3	2.4	0.9	4.3	5.8	5.2	3.7	0.2
4.2	2.7	0.9	4.6	5.9	5.3	3.9	0.3
4.0	2.9	1.0	4.9	6.2	5.3	3.8	0.8
4.0	3.4	1.0	5.3	7.0	5.6	3.8	2.2
4.0	3.6	1.0	5.7	6.9	5.4	3.8	1.1
4.0	3.7	1.0	6.0	7.2	5.3	3.9	0.9
3.9	4.4	1.0	6.3	7.6	5.3	3.8	1.5
4.0	4.8	1.0	6.5	8.3	5.4	3.8	1.6
3.9	5.8	1.0	6.5	9.1	5.4	3.7	4.4

表 3. 年齡層層別 1人當所得 및 消費構造 (1977)

(單位: 원, %)

	24歲 以下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歲 以上
食料品費	43.1	41.2	43.0	43.7	41.7	39.3	37.8	39.2
住居費	19.6	21.2	21.9	20.8	19.9	18.2	18.8	18.5
耐久消費財	4.7	5.7	5.5	5.1	3.9	3.4	3.5	3.6
光熱費	10.6	5.0	5.2	5.0	4.9	4.7	4.4	4.8
被服費	21.8	10.6	9.8	9.7	8.8	9.4	9.4	9.3
雜費	6.5	22.0	20.1	20.8	24.7	28.4	29.6	28.2
教育費		2.0	1.3	2.3	7.9	11.5	12.0	10.7

資料: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7.

註: 費目別 消費는 構成比임.

이 3.6%, 45 ~ 54歲까지는 約 3.4 ~ 3.5%의 比重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一般的으로 食料品 消費의 比重은 45歲以下가 以前보다 높게 나타나 있으며 教育費의 境遇는 45歲以上の 負擔率이 10%를 上廻하고 있는 반면에 40 ~ 44歲는 거의 8% 그리고 24歲以下の 6.5%를 除外한다면 다른 年齡層의 境遇는 約 2% 水準에 있을 뿐이다.

所得階層別로 消費支出의 構成을 살펴본다면 表 4에서와 같다.

表 4는 1965년부터 1977년까지의 時系列 資料를 보여주고 있다.

所得의 階層은 全体所得을 五位等分하여 最低所得 20%를 最低階層으로 하였고 20%씩 所得階層을 나누어 第I부터 第V階層까지 階層을 区分하였다.

우선 食料品費의 比重은 모든 所得階層에서 減少해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低所得層에서 高所得層으로 올라 갈수록 減少傾向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時系列的으로 보나 「크로스섹션」의 側面에서 보던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65~77年間의 平均値를 살펴볼 때 雜費의 比重은 最低所得階層이 20.2%에서 所得階層이 높아짐에 따라 增加하여 最高所得階層의 境遇는 31.5%로 總消費의 約 3분의1 이에 充當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住居費의 境遇도 最高所得階層을 例外로 한다면 低所得層일수록 總消費에 占하는 比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一般的으로 第IV階層이 우리나라의 平均消費構造를 代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所得階層을 묶어 高所得·中間所得 그리고 低所得으로 区分하고 그 消費支出의 構成을 보면 耐久財 消費比重은 低所得層의 경우 消費支出의 1.2%, 中間所得層의 境遇는 1.8% 그리고 高所得層의 境遇는 2.9%를 보이고 있으며 雜費 構成品目 가운데서 教育費 支出의 比重은 低所得層에서 2.9%, 中間所得層에서 5.5% 그리고 高所得層에서 8.2%를 나타내고 있다. (附錄6 參照)

所得階層別로 計算된 家計消費의 所得彈力性을 살펴볼 때 低所得層의 境遇에는 教育費의 所得彈力성이 2.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第Ⅱ階層	食料品費	71.1	56.3	50.8	51.8	53.2	53.2	53.4	55.
	住居費	3.4	5.6	6.4	5.8	5.7	7.2	9.1	6.
	光熱費	7.2	7.5	6.7	6.9	6.3	6.7	6.4	6.
	被服費	5.3	9.5	11.2	11.3	10.2	8.8	9.6	9.
	雜費	13.0	21.1	24.9	24.2	24.6	24.1	21.5	22.
第Ⅲ階層	食料品費	68.3	54.5	49.2	51.0	52.1	52.7	51.3	53.
	住居費	3.2	5.4	6.5	5.4	5.4	6.4	8.7	5.1
	光熱費	6.5	7.1	5.9	6.5	5.9	6.1	5.8	6.
	被服費	6.4	11.0	12.2	11.1	10.8	9.1	10.4	10.1
	雜費	15.6	22.0	26.2	26.0	25.3	25.7	26.7	24.1
第Ⅳ階層	食料品費	64.3	50.1	46.8	49.5	49.3	51.3	40.6	50.1
	住居費	2.9	4.2	6.6	5.1	5.0	6.4	8.8	5.1
	光熱費	6.2	6.2	5.1	6.2	5.8	5.9	5.3	5.9
	被服費	7.5	12.8	12.9	11.0	11.0	9.6	11.4	10.8
	雜費	19.1	26.7	28.6	28.2	28.9	26.8	26.7	27.0
第Ⅴ階層	食料品費	56.6	47.1	41.7	41.5	43.2	42.4	40.6	44.4
	住居費	3.4	4.4	6.3	6.2	5.3	9.7	10.8	6.4
	光熱費	5.6	5.7	5.1	5.6	5.2	5.0	4.8	5.3
	被服費	9.2	14.2	15.6	12.3	11.3	11.7	12.5	12.3
	雜費	25.2	28.6	31.8	34.4	35.0	31.2	31.8	31.5
全階層平均	食料品費	64.0	51.9	46.7	47.7	48.8	48.9	47.4	50.3
	住居費	3.4	4.8	6.4	5.8	5.3	7.8	9.4	6.1
	光熱費	6.4	6.7	5.7	6.4	5.8	5.9	5.6	6.1
	被服費	7.4	12.0	13.0	11.5	10.8	10.0	11.0	10.8
	雜費	18.8	24.6	28.2	28.6	29.3	27.4	26.6	26.7

資料：都市家計年報各年度로부터 作成

注：經營價格構成比임

이 耐久消費財로 1.63, 被服費가 1.52 등의 順으로 나타나 있을 뿐 中間所得層과 高所得層은 耐久消費財의 所得彈力性이 각기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即 中間所得層의 경우에 이것은 1.66 이며 教育費의 所得彈力性이 1.51, 被服費가 1.44로 나타나 있으며 高所得層의 境遇에 耐久消費財의 所得彈力性은 1.88, 被服費가 1.39 그리고 教育費가 1.36으로 나타나 있다.¹⁰⁾

2.2 消費決定의 理論

그러면 위와 같은 家計의 消費行態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一般的으로 家計의 消費活動은 所得水準에 의하여 크게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勿論 所得以外の 社會·經濟的 要因과 財政狀況等 여러 變數들이 消費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經濟學理論에 의하면 所得이 消費에 影響을 미치는 決定要因으로 說明될 때 大略 세가지 理論 即 絶對所得假說, 相對所得假說 그리고 永久所得假說들이 있다.

Keynes는 「人間은 누구나 所得이 增加할 때에 消費를 增加시키려는 性向을 보이고 있으나 消費의 增加分은 恒常 所得의 增加分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¹⁾ 이러한 Keynes의 主張은 消費函數의 假說을 定立케 하였다.

이러한 Keynes의 所得·消費間의 關係에 대한 假說은 1940年代以後 經濟學界에서 消費函數의 經驗的 測定을 크게 자극하였고

갖가지 假說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絶對所得과 消費와의 單純한 關係에서 나타난 理論上的 矛盾을 補完한 것이 相對所得 假說이다. Bredy와 Friedman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도되고 Modigliani와 Duesenberry에 의하여 理論的이고 經驗的 支持를 받은 이 假說의 骨字는 個人들의 消費活動은 所得階層에 있어서 그 個人의 相對的 位置에 따라 影響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¹²⁾

消費者 形態에 관한 가장 最近의 假說은 現在所得만으로 消費支出을 說明하려는 것이 不適하다는 理由로 나타난 永久所得 假說이다. 이것은 특히 都市勤勞者의 所得이 일정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의 消費支出은 安定的인 사실에서 現在所得보다는 將來所得까지를 감안한 永久所得이 消費形態를 더 잘 說明하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假說은 Milton Friedman에 의하여 처음으로 提示되었으며 Modigliani, Brumberg 그리고 Ando等に 의하여도 獨立적으로 研究되었다.¹³⁾

이와 같이 消費支出이 所得과 函數關係에 있다는 假說外에도 消費形態에 미치는 社會·經濟的 特性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人口集團의 構成內容, 職業 및 教育水準, 家族의 크기, 年齡階層, 壽命 등이 消費에 미치는 效果를 例로 들 수 있을 것이다.¹⁴⁾

3. 耐久消費財의 供給

3.1 耐久消費財産業의 定義

耐久消費財는 一般的으로 電氣機器, 電子機器 그리고 自動車 (乘用) 등을 包含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電氣機器는 重電機器와 輕電機器로 区分이 되는데 前者는 대개가 生産財의 범주에 속하는 品目들이다. 輕電機器는 다시 電動力運搬設備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等), 照明器具 (電球等)와 家庭用 電氣機器로 区分되는데 耐久消費財는 모두 家庭用 電氣機器에 屬하는 品目들이다.

이들은 大略 冷蔵庫, 扇風機, 洗濯機, 空氣調和機, 電熱機器, 空氣掃除器, 配線器具等이며 大量消費時代의 特徵은 冷蔵庫, 洗濯機, 扇風機 (에어콘包含) 등의 大量消費로 나타나고 있다.

電子機器는 家庭用機器와 産業用機器 (電話機, 交換機, 電卓) 그리고 部品 (真空管, 트랜지스터, 튜너 등)으로 区分되고 있는데 耐久消費財는 家庭用 電子機器로서 라디오, 텔레비존, 카세트錄音機, 電蓄, 電子時計등을 일컫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는 乘用車, 버스, 트럭, 其他 特殊車輛으로 区分되며 主로 乘用車를 大量消費時代에 있어서 하나의 指標로 利用하고 있다.

3.2 家庭用 電氣機器

1962年 第1次5個年 開發計劃이 執行되기 以前까지 家庭用

電氣機器는 거의 輸入에 依存하여 供給되었다. 그러나 1964年 4月부터 無制限送電이 實施되고 1965年 12月에 農漁村電化促進法이 制定되면서 電氣機器가 大量으로 消費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실로 電氣機器의 生産은 電氣가 어느 정도 普及되어 있느냐 하는 国内電化 事情과 密接한 關係에 있다.

都市의 電化率은 거의 100%에 가깝다 할 수 있으나 農漁村의 境遇에 電化率은 1964年만 하더라도 約 12%에 불과하였다.

1965년부터 1975年 사이에 年平均 113,000戶를 電化하여 1975年에 이르러서는 農漁村電話率이 64.4%로 提高되었다.

1978年末 現在 農漁村電話率은 97.2%에 이르러 全国에 電氣機器가 供給될 수 있는 与件이 造成되어 있는 셈이다.¹⁵⁾

그동안 우리나라의 電力産業은 1962年 불과 434 MW에서 1975년에는 4,720 MW로서 20%以上の 增加率을 보이고 있어 經濟成長率보다 두배나 훨씬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表1>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70年以後 電氣機器의 生産은 年平均 24%의 增加率(經常價格表示)을 보였고 實質增加率은 17%에 相当하였다. 이 産業의 輸出比率은 1970年 7.3%에서 1975年 41%로 每年 급격히 伸張하였다. 輸入依存度는 42%로부터 61%로 增加하였는데 이는 주로 国内産業의 발달로 電氣機器의 需要는 크게 增大되었으나 生産이 뒷받침될 수 없는 發電器, 變圧器등 重電機器가 크게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때문이었다.

<表1>

電力産業の成長

	単 位	1962	1966	1971	1975
発 電 設 備	MW	434	769	2,628	4,720
韓 電	"	434	769	2,188	4,195
他 社	"	-	-	440	525
可 能 出 力	"	361	710	2,391	3,613
総 発 電 量	GWH	1,979	3,886	10,540	19,837
韓 電	"	1,979	3,886	9,055	17,307
他 社	"	-	-	1,485	2,530
所 内 消 費 率	%	4.4	5.5	4.9	5.5
送 電 端 電 力 量	GWH	1,891	3,673	10,028	18,752
送 配 電 損 失 率	%	22.3	18.1	11.4	11.3
販 売 電 力 量	GWH	1,508	3,008	8,884	16,630
最 大 電 力	MW	343	696	1,777	3,351
平 均 電 力	"	226	444	1,203	2,265
負 荷 率	%	65.8	63.7	67.7	67.6
利 用 率	"	53.0	57.6	45.8	48.0
豫 備 率	"	△ 9.8	2.0	34.6	7.8
需 用 家 数	千 戸	8.6	1,331	2,356	3,939
人 口 1 人 当 電 力 消 費 量	KWH	58	103	279	480

資料：韓国電力株式会社（韓国産業 1976, p.32）

<表 2> 家庭用 電氣機器需給狀況 (1975~78)

(單位：千台)

品目 年度	冷 藏 庫		洗 濯 機		에 어 콘		扇 風 機	
	生 産	内 需	生 産	内 需	生 産	内 需	生 産	内 需
1975	112	101	52	46	16	12	566	569
1976	261	198	65	67	14	19	921	-
1977	388	373	112	116	15	17	1,182	1,059
1978	1,047	881	283	260	36	26	1,934	1,782

資料：經濟企劃院，韓國統計月報，1979.2.

關稅庁，貿易統計年報.

家庭用 電氣機器 가운데서 冷蔵庫는 1966년에 불과 3,000대가 生産되었으나 1969년에 12,000대, 1974년에 129,000대가 生産되었고 1978년에는 100万台를 돌파하였다.

經濟企劃院이 내놓은 主要工產品 生産消費活動展望 (1979年 10月 16日)에 의하면 1977년에 39万台의 冷蔵庫가 生産되고 그중에서 5万 2千대가 輸出되었으며 輸入된 2,600余台를 合할 때 国内에서 消費된 冷蔵庫는 36万 6千대에 이르렀다. 1978年에도 100万台以上の 冷蔵庫가 生産되었으며 国内消費는 83万余台, 1979年에도 160万台生産에 消費는 130万台로 추정되고 있으며 1980년에는 210万台의 冷蔵庫가 生産되고 170万台가 消費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扇風機는 1970년에 337,000대가 生産되었으나 1973년에

457,000대가 생산되었고 1975년에 518,000대, 그리고 1978년에 190万台가 생산되었다.

扇風機의 境遇도 經濟企劃院의 展望(1979.10.16)에 의하면 1977년에 116万余대가 생산되어 5万5千대가 輸出되고 国内消費는 84万余대, 1978년에 191万余대가 생산되어 171万余대가 国内에서 消費되었다. 1979년에는 270万台가 생산되어 240万台가 消費되고 1980년에는 300万台가 생산되어 250万台가 国内에서 消費될 것이 展望되고 있다.

에어콘디셔너는 1970년에 690대가 생산되었고 1972년에 1,878대, 1973년에 3,286대, 1974년에 17,652대 그리고 1975년에 12,005대가 생산되었고 1978년에는 3万7千대가 생산되었다.

이처럼 家庭用 電氣機器의 生産이 增加하게 된 것은 生産基盤의 扩充 못지않게 需要의 增加가 폭주한데에도 연유하고 있다. 특히 1970年代에 이르러 個人当 国民所得의 持續的인 增加는 家庭用 電氣機器의 需要에 크게 影響 미치었다.

1961년에 82달러에 불과하던 個人当 国民所得은 1969년에 200달러 水準을 넘게 되었고 1972년에는 306달러, 1974년에는 523달러, 1976년에는 765달러 그리고 1978년에는 1,280달러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러한 所得水準의 向上은 大量消費時代의 特徵을 잘 나타내주기 시작한다.

1978년에 이르러 家庭用 電氣機器의 家口普及率은 冷蔵庫가 24%로 추정되고 있다. 即 全体家口の 約 4分の1이 冷蔵庫를 所

有하고 있는 셈이다. 扇風機의 家口普及率は 85%, 洗濯機의 家口普及率が 7.5% 그리고 에어컨普及率が 1.3%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3 家庭用 電子機器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1958년에야 일부 輸入部品을 使用하여 國產라디오를 生産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927년에 라디오放送局이 開設되고 1956年 TV放送局이 設立될 때까지 라디오조차 國內에서 生産하지 못하였던 것을 意味하고 있다.

1962년에 國產라디오가 輸出되기 시작하였고 1960年代 後半부터 TV, 트랜지스터, 電子卓上時計 등 고도의 技術集約的 電子製品이 生産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는 家電製品 가운데서 가장 높은 技術과 精密度를 必要로 하는 컬러 T.V가 生産되기 시작하였다.

韓國의 電子産業은 다른 어느 産業보다 못지않게 強力한 政府의 支援下에서 成長하여 왔다. 第2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期間中에 電子産業은 輸出戰略産業으로 지정되었고 1976年은 「韓國電子의 해」로 設定되는 등 이 産業이 받아 온 政府의 惠沢은 매우 컸다.

1972년에 불과 217個業체에 5万 2,500名이던 電子産業의 従業員은 1975년에 385個社에서 10万名을 넘는 従業員을 고용하고 있게 되었다. 그러나 家庭用 電子製品은 寡占的 性格을 띤 市場이 形成되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몇몇의 大메이커에 의하여 市場이 支配되고 있다 하겠다.

1966년에 라디오는 약 86万台 생산되었다. 1968년에 라디오는 120万台가 생산되었고 1973년에 320余万台가 생산되었으며 1976~77年間に 毎年 600万台以上이 各各 生産되었고 1978年以後 라디오는 약 400万台線에 生産이 繼續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1966年 TV는 약 8,000台가 生産되었고 1970년에야 120万台를 上廻하였다. 1974년에 120万台의 TV가 生産되었으며 1976년에 220万余台 그리고 1977년에 320万余台가 生産되었다.

1978年에도 480万余台가 生産되었으며 1979년에 580万台 그리고 1980년에 650万台가 生産될 것으로 計劃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生産된 라디오나 TV는 内需用으로 利用되기 보다는 大部分이 海外市場으로 輸出되어 왔다.

家庭用 電子機器의 最近 生産 및 内需現況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77년에 TV生産은 2億2千万달라로서 이 가운데서 黑白 TV가 2億2百万달라이며 黑白 TV의 1億6,200百万달라가 内需用으로 販売되었다. 1978년에 TV生産은 3億7,800万달라를 이 가운데서 黑白 TV는 2億9,300万달라이고 内需用으로 1億7,500万달라가 販売되었는데 이는 109%의 国内需要의 増加를 意味하였다.

라디오의 生産은 1977年以後 6千万달라線에 머물렀고 国内需要도 千万달라未滿이었는데 이는 国内市場이 飽化狀態에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表 3> 家庭用 電子機器

(單位：百萬달라)

品目 年度	라 디 오		TV (黑白)		録 音 機		電 子 時 計	
	生 産	内 需	生 産	内 需	生 産	内 需	生 産	内 需
1977	67	10	204	162	106	19	33	4
1978	61	9	293	175	176	420	56	24

資料：韓國電子工業振興會

録音機의 경우는 内需가 1978年을 1977年과 比較할 때 227%로 急増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電子時計의 境遇도 608%의 伸張率을 보이고 있다. 電蓄의 境遇를 보더라도 1977年에 內需用 販売는 5百萬달라未滿이었는데 1978年에는 2,400萬달라로 무려 508%의 급격한 伸張率을 보여 1977~78年間의 폭발적 需要增大現象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라디오와 TV普及率을 살펴보면 <表 4>와 같다.

1970年에 라디오가 家口當 普及率은 54%였다. 그러던 것이 1971年에는 67%, 1972年에 71%, 1973年에 77%, 1974年에 81%, 1975年에 83%, 1976年에 86%, 1977年에 93%에 이르렀고 1978年에는 99%의 家口가 라디오를 所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TV는 1970年에 7%에 불과하던 家口普及率이 每年 增加하기 시작하여 1975年에는 全家口의 30%가 TV를 所有하게 되

<表 4>

電子製品 家口普及率(%)

区分 年度別	라 디 오		T . V	
	保有台數	家口当普及率(%)	保有台數	家口当普及率(%)
1970	3,166,648	54.0	379,564	6.5
1971	3,820,273	66.9	616,392	10.5
1972	4,203,893	70.7	905,363	15.2
1973	4,644,905	76.7	1,282,122	21.2
1974	5,091,814	80.9	1,618,617	25.7
1975	5,600,800	82.8	2,061,072	30.5
1976	5,869,946	85.9	2,809,131	40.9
1977	6,503,068	92.8	3,804,535	54.3
1978	6,936,429	99.0	5,135,496	70.8

資料：經濟企劃院

있고 1976년에 41%, 1977년에 54% 그리고 1978년에 71%의 普及率을 보이고 있다.

10年前的의 日本과 比較하여 본다면 日本의 TV 普及率은 韓国보다 더 높지만 라디오 普及率은 韓国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5>는 이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68年 日本의 黑白 TV 家口 普及率은 96%를 피크를 이루었다. 그후 칼라 TV의 普及에 影響으로 黑白 TV의 普及率은 繼續 下落하

기 시작하여 1970년에 90%, 1971년에 82%, 1972년에 75%, 1973년에 65%, 그리고 1974년에 55%로 내려갔다. 反面에 칼라TV의 普及率은 1967년에 불과 2%未滿이었으나 1969년에 14%, 1971년에 42%, 1974년에 86%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表5> 日本의 家電子製品普及率(%)

(單位: %)

	칼라TV	黑白TV	電 蓄	라 디 오	録 音 機
1967	1.6	96.2	19.8	74.7	22.5
1968	5.4	96.4	24.1	72.1	24.5
1969	13.9	94.7	27.3	72.6	28.6
1970	26.3	90.2	31.2	71.7	30.8
1971	42.3	82.3	33.9	69.8	33.4
1972	61.1	75.1	40.4	71.5	38.1
1973	75.8	65.4	44.4	72.4	42.4
1974. 2	85.9	55.7	47.0	75.6	47.0

資料: 韓国電子工業協同組合 刊行「電子工業」- 1975.2.

이와 같이 日本에서 칼라TV가 生産되어 放映되기 시작하면서 黑白TV의 需要가 격감하고 그대신 칼라TV의 需要가 激增한 것은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아직까지 放映하지 않고 있는 칼라프로그램이 개시되고 칼라TV가 市販되기 시작하면 黑白對 칼라의 TV構成은 長期的으로 後者에게 유리하게 展開될 것

은 日本의 例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日本에서 라디오의 普及率은 比較的 韓國보다는 낮다. 1960年代 中半以後 家口當普及率은 70~75%線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韓國과는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그외에 家庭用 電子機器로는 電蓄과 錄音機의 家口普及率을 살펴볼때 日本에서 1967년에 電蓄普及率은 20%였고 1970년에 31%, 1974년에 47%로 上昇하였고 錄音機는 1967년에 23%에서 1970년에 31% 그리고 1974년에 47%를 보여 兩製品의 家口普及率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乘用車

우리나라에서 乘用車는 1962年 第1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을 施行하기 시작한 以後부터 生産되고 있다. 특히 1962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期間동안에 中間分解部品을 導入하여 單純組立式 生産을 하였으며 이때의 代表的 車種은 새나라乘用車였다.

1966년부터 1972년에 이르는 期間에 完全分解部品을 輸入하여 乘用車를 組立하기 시작하였다. 이 期間동안에 各種의 技術提携등이 이루어졌다. 1966년에 新進自動車와 日本의 도요다自動車 사이에 資本과 技術導入이 이루어졌고 1968년에 現代自動車와 美國의 Ford自動車間에 技術提携가 이루어져 完全分解部品の 輸入으로 各種의 車輛이 生産되었다.

1970년에는 亞細亞自動車와 이태리의 Fiat自動車間에 技術提携

가 이루어졌으며 1971년에는 起亚産業이 4輪車를 生産하기 시작하여 四大메이커가 国内乗用車 生産에 参与하게 되었다. 新進自動車는 美国의 General Motors社와 合作으로 1972年 GMK를 設立하여 外国GM의 모델車輛을 組立生産하기 시작하였다.

1973年 中東戰을 계기로 石油價引上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国産固有의 모델을 開發하여 小型乗用車를 生産하기 위한 施設投資를 活潑히 展開하였으며 그 代表的 모델은 現代自動車の 포니, 起亚自動車の 브리싸, GMK (그후 大宇그룹에서 인수하여 새한自動車로 改名됨)의 카미나 (새한自動車에서는 제미니) 등을 例로 들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自動車生産은 中間分解部品の 導入과 組立의 段階를 거쳐 完全分解部品の 輸入과 組立의 段階를 거쳐 国産品을 開發하여 国産化比率을 95%以上으로 높여 小型乗用車를 生産하는 段階에 이르러 있지만 아직까지도 国内市場의 規模가 협소하고 輸出市場을 開拓하지 못한 処地에 있으므로 量産体制에 이르지 못하여 生産單價가 一般的으로 國際市場 價格보다 二倍가 되고 있다.

실로 自動車産業이 当面한 가장 큰 隘路는 이와 같이 国産車의 價格이 國際價格을 훨씬 上廻함으로서 大量生産→大量消費를 前提로 하여야 하는 이 産業이 需要의 不足으로 企業의 利潤이 저하하고 이것은 다시 資本과 技術의 蓄積을 저해하며 그리하여 施設投資가 不振하는 狀況을 촉발시키는 惡盾環을 繼續시키고 있을 뿐이다.

四大自動車 메이커들의 乗用車生産이 全体 車輛生産에 占하는 比

重은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67年, 소위 完全分解部品の 輸入을 통하여 組立生産을 하던 때 乗用車는 全体 車輛의 74%를 占하였다. 그러나 이 比率이

<表 6> 自動車生産実績

(單位:台)

	乗用車		버 스		트 렉		合 計	
	台	%	台	%	台	%	台	%
1967	4,583	73.9	236	3.8	1,385	22.3	6,204	100.0
1968	12,429	70.3	942	5.3	4,305	24.4	17,676	100.0
1969	19,494	67.2	1,882	6.5	9,618	33.2	28,994	100.0
1970	14,487	50.3	3,803	13.2	10,529	36.5	28,819	100.0
1971	12,428	52.7	3,663	15.5	7,511	31.8	23,602	100.0
1972	9,525	51.1	2,581	13.8	6,542	35.1	18,648	100.0
1973	12,751	48.5	3,494	13.3	10,069	38.2	26,314	100.0
1974	9,069	29.9	3,945	13.0	17,276	57.1	30,290	100.0
1975	17,583	48.3	3,808	10.5	14,973	41.2	36,364	100.0
1977	42,284	50.9	5,453	6.6	35,263	42.5	83,000	100.0
1978	85,693	54.8	7,279	4.7	63,446	40.6	156,418	100.0

資料: 商工部

1970년에는 50%로 내려갔고 1975년에는 다시 48%에 머물렀다. 反面에 버스와 트럭의 相對的 比重은 점차로 增加하였다.

四大自動車 메이커의 乘用車 生産実績은 <表7>에서 보는 바와 같다. 乘用車의 境遇는 GMK의 生産実績이 1973年까지 가장 높았으나 그후 現代와 起亞에게 市場占有率을 뺏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7> 会社別 年度別 自動車 生産実績

(单位: 台)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7	1978
乘 用 車	GMK	11,970	7,161	5,179	6,836	1,565	2,659	4,270	12,162
	現代	2,356	2,398	2,615	5,426	6,846	4,722	27,466	57,054
	亞細亞	1,737	2,869	1,731	489	41	-	-	-
	起亞	-	-	-	-	617	10,202	10,548	16,477
	小計	16,063	12,428	9,525	12,751	9,069	17,583	42,284	85,693

資料: 商工部

乘用車의 需要는 크게는 國民經濟의 水準과 密接한 關係에 있으며 더 具體的으로는 消費者들의 所得水準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自動車의 價格이 個人당 國民所得의 2~3倍 되는 때 乘用車의 需要가 擴大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美國의 境遇를 보더라도 乘用車의 價格이 個人당 國民所得의 約 3倍가 되면 1910年부터 需要가 늘기 시작하여 2倍가 된 1915年以後에는 大量消費에 이르렀고 日本의 경우도 個人당 國民所得이

乗用車 價格의 3分の1로 接近하게 되었던 1963년부터 乗用車의 登録台數가 10万台를 초과하였고 2分の1이 된 1967年 以後에 는 年間 40万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個人當 國民所得의 水準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위에 規模의 經濟를 건울 수 있도록 適正運營이 보장되지 못하는 小量生産 그리고 高率의 各種 税金은 乗用車의 消費者價格을 너무도 올려놓고 있어 自動車의 大量消費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乗用車 家口當普及率은 많이 增加하였다. <表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0年에 乗用車 保有台數는 12萬6千余台로 家口當普及率은 2.2%에 불과하였다.

1971年과 1972년에는 普及率이 2.4%로 增加하였고 石油危機가 있었던 1973년에는 乗用車 保有台數가 16萬5千余台로 普及率이 2.7%로 더욱 增加하였다. 1974年과 1975年에도 普及率은 2.8%와 2.9%로 各各 增加하였으며 1976년에는 保有된 乗用車가 21萬9千台로서 全体家口의 3.2%가 乗用車를 保有하고 있었다.

1977年 한해 동안에 乗用車 保有台數는 5萬6千余台가 增加한 27萬5千余台에 이르러 乗用車普及率은 3.9%에 이르렀으며 1978년에는 乗用車 保有台數가 더욱 增加하였다. 即 1978年 한해 동안에 乗用車 保有台數가 거의 10万台가 增加한 38萬4,500余台로 늘어났으며 家口當普及率은 5.3%에 이르러 大量消費時代의 特徵을 약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9年の 緊縮과 不

<表 8>

乗用車 家口当普及率

年 度	自 動 車	
	保 有 台 数	家 口 当 普 及 率 (%)
1970	126,506	2.2
1971	140,269	2.4
1972	145,638	2.4
1973	165,307	2.7
1974	177,505	2.8
1975	193,927	2.9
1976	218,978	3.2
1977	275,312	3.9
1978	384,536	5.3

資料：經濟企劃院

景氣의 影響으로 이와 같은 乗用車 需要의 급격한 추세는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당분간 1978年과 같았던 自動車 需要激增 現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 大量消費時代의 靑少年

W. Rostow는 “經濟成長의 諸段階”에서 Marx가 主張하는 封建主義 → 資本主義 → 社會主義 → 共產主義이라는 一連의 歷史的 過程에 對案으로 國民經濟는 傳統社會 → 도약에의 準備段階 → 도약단계 → 成熟段階를 거쳐 大量消費段階에 이른다는 論說를 펴낸 바 있다.¹⁶⁾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도약단계를 벗어난지 이제 몇년이 되지 않는듯한 우리經濟가 벌써 大量消費時代에 접어들고 있다는 徵兆는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Rostow의 소위 5段階가 複合적으로 우리 社會構造內에 共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로 라디오의 家口普及率이 100%에 이르고 TV의 普及率도 70%를 上廻하는 것은 大量消費時代에 이르렀음을 端的으로 나타내주는 指標이면서도 自動車의 普及率은 아직도 5%水準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앞으로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닥아올 乘用車大量消費의 時代를 予告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交通과 通信의 發達, 教育의 普及은 점차로 이러한 複合性을 점차로 제거하여가고 있으며 갖가지 展示效果들은 라디오나 특히 TV를 통하여 農漁村과 都市를 區別하지 않고 같은 物件에 대한 需要를 擴大시켜가면서 消費者時代의 매개체가 되어가고 있다.

* 消費者가 뿌리는 돈의 85%는 女子의 핸드백에서 나오고 15%

는 靑少年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消費者時代의 消費主体로는 女子들과 함께 靑少年들의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들은 消費者主權을 철저히 부르짖고 나설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Adam Smith가 主唱한 消費者主權이란 現代經濟의 條件下에서는 한낱 허울좋은 口號에 不過하다는 사실이 確認되고 있다. 美國의 新經濟學의 總首 Galbraith는 그의 "新産業國"이라는 著書에서 生産者들은 消費者의 選好에 맞추어 生産活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선 商品을 研究開發하여 生産한 후에 주로 광고 등을 통하여 그 商品을 사지않을 수 없도록 消費者들의 選好를 은연중에 바꿔 놓는다는 사실이다.17)

그야말로 消費者는 主權을 지닌 王이라기 보다는 生産者의 計劃에 맞추어 움직이는 꼭두각시이며 노예라는 것이다. 소위 大衆消費時代에도 消費의 最終的 決定은 企業이며 消費者가 아니라는 Galbraith의 主張은 음미해 보아야 할 갖가지 함축성을 너무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消費者들의 利益이나 복지를 아랑곳하지않고 企業의 利潤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低質의 商品을 서슴없이 市場에 내놓고 있는 生産者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이와같은 製品들이라도 일단 新聞, 라디오, T.V 등의 광고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친근해지면 우리들은 은연중에 그 商品이 消費者의 利益만을 염두에 두고 製造된 염두에 두고 製造된 것과 같은 錯覺을 일으키게 된다. 이

는 靑少年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消費者時代의 消費主体로는 女子들과 함께 靑少年들의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들은 消費者主權을 철저히 부르짖고 나설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Adam Smith가 主唱한 消費者主權이란 現代經濟의 條件下에서는 한낱 허울좋은 口號에 不過하다는 사실이 確認되고 있다. 美國의 新經濟學의 總首 Galbraith는 그의 "新産業國"이라는 著書에서 生産者들은 消費者의 選好에 맞추어 生産活動을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선 商品을 研究開發하여 生産한 후에 주로 광고 등을 통하여 그 商品을 사지않을 수 없도록 消費者들의 選好를 은연중에 바꿔 놓는다는 사실이다.17)

그야말로 消費者는 主權을 지닌 王이라기 보다는 生産者의 計劃에 맞추어 움직이는 꼭두각시이며 노예라는 것이다. 소위 大衆消費時代에도 消費의 最終的 決定은 企業이며 消費者가 아니라는 Galbraith의 主張은 음미해 보아야 할 갖가지 함축성을 너무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消費者들의 利益이나 복지를 아랑곳하지않고 企業의 利潤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低質의 商品을 서슴없이 市場에 내놓고 있는 生産者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이와같은 製品들이라도 일단 新聞, 라디오, T.V 등의 廣告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친근해지면 우리들은 은연중에 그 商品이 消費者의 利益만을 염두에 두고 製造된 염두에 두고 製造된 것과 같은 錯覺을 일으키게 된다. 이

와같은 광고幻想에 사로잡힌 消費者는 그 製品廣告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 재화의 需要가 非彈力的 性向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傾向이 어디 商品에만 限定되었을까 이러한 大量消費時代의 社会的 狀況은 消費生活 뿐만아니라 意識生活에 적지않은 影響을 미칠것이 너무도 自명한 일이다.

특히 確固한 主体意識이 形成되기 이전의 靑少年들의 意識形成에 미치는 効果는 적지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問題가 되는 것을 몇개만 추려 여기에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物質萬能主義와 癡배이다. 일반적으로 우리社會에서 近代化는 西歐化와 同意語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사실은 韓國社會의 近代化를 西歐化와 同一視하는 傾向을 농후하게 하고 있다.

하여튼 라디오나 TV 등을 통하여, 그리고 自家用車輛의 遂行을 지켜보면서 西歐의 物質文明이 얼마나 편한 것이냐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느끼도록 하고 있다.

편한 生活에 대한 選好는 이러한 生活을 可能하게 하여주는 物件에 대한 需要를 증대시켜 주며 이것이 社会的 身分의 基準이 되도록 하고 있다. 伝來로 내려오던 韓國의 生活相과 價值觀이 36년에 걸친 日帝의 彈壓과 計略을 거치면서 變化하였고 解放以後 6.25 動亂을 통하여 完全히 허물어진 마당에서 外勢에 대한 依存은 심화되었고 따라서 生活樣相과 價值觀도 많이 몰라보도록 變化하였다.

6.25 動亂을 거쳐가는 동안에 UN軍의 도움으로 國土를 지키게 되고 外國의 援助를 얻어 國民生活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外國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意識形成은 1962年부터 積極적으로 推進하기 始作한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에 의하여 더욱 深化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962年 以後 우리들은 좀 더 經濟生活과 意識의 國際化 推勢가 對外依存 일변도로 부터 相互依存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하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對外依存이 深化되었던 40年代末로 50年代였던 相互依存性이 점차로 높아져 간 60年代와 70年代였던 간에 西歐의 物質文明은 우리 經濟生活로 意識形成에 거의 비슷한 影響을 남겨주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西歐化的 影響은 高度의 經濟成長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는 기간에 더욱 促進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經濟成長의 目標를 先進經濟를 이룩하는데 두고 있는 때 先進經濟가 西歐經濟에 의하여 代表될 때 韓國經濟의 向方은 뚜렷이 西歐化的 方向을 가고 있음을 뜻하는 때문이다.

이와같이 物質萬能主義가 팽배해가는 狀況下에서 統一後繼世代들의 意識生活은 어떠한 影響을 받게 될 것인가 이들은 당연히 民族統一이라는 民族的 課業에 임하는 자세에서 二律背反的 立場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對外指向的 開發政策을 통하여 더욱 더 國際化되어가는 韓國經濟는 成長過程에서 政治, 社會등 全般에 걸쳐 적지않은 影響을 미쳐왔으며 經濟發展을 통한 近代化는 靑少年의

意識形成過程에 “西歐化”的 要素를 많이 加味시켜 왔다.

따라서 民族의 統一이 우리側의 경이적인 經濟發展의 結果로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有利하게 이루어 진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消費經濟의 結果로 發生된 靑少年들의 西歐式思考와 民族主義的 要求間에는 적지않은 乖離가 있을 것은 너무도 自明한 일이다.

둘째 이와같은 物質萬能主義는 健全한 消費生活보다는 各種의 變則的인 消費生活를 造長시켜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消費活動은 國民들의 物質的, 精神的 福祉를 增大시키기 위하여 必要하고도 불가결한 要素이다. 消費生活이 健全한 것은 意識水準도 健全한 것을 意味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消費活動이 健全한 것이 되지 못하고 不健全하며 사치성을 띄울 때 이러한 消費生活로부터 오는 害는 物質·精神 兩面에서 적지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消費生活이 健全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며 어떠한 形態를 取하는 것인가

Harvey Leibenstein은 이와 관련하여 消費者들의 需要行態에 있어서 여러가지 效果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說明해주고 있다.¹⁸⁾

그는 消費需要를 機能的 (Functional) 需要와 非機能的 (Non-functional) 需要로 나누면서 前者는 該當 財貨의 固有한 性質때문에 나타나는 需要이며 後者는 該當財貨의 固有한 性質과는 全然 無關한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이러한 需要의 形態를 밴드왜곤

(Bandwagon) 効果, 스놉 (Snob) 効果 그리고 베블린 (Veblen) 効果로 나누어 說明한다.

밴드왜곤 효과는 다른 사람들이 消費하니 나도 消費하여야겠다는 群衆心理的 消費效果를 意味하는데 이것은 결코 必要가 없더라도 남들처럼 行動하기 위한 結核消費인 것이다.

스놉 효과란 다른 사람들이 消費한다면 나는 그 消費로부터 빠져 다른것을 消費하고 그들과는 다르다는 優越感을 촉발시키는 效果를 意味한다.

베블린 효과는 財貨의 價格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消費가 늘어나는 소위 誇示消費 (Conspicuous Consumption) 를 意味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現狀들이다.

Leibenstein은 이러한 不健全한 消費以外에도 이의 범주안에 投機的 消費와 非合理的 消費까지 包含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健全치 못한 消費行脚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消費패턴이 靑少年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며 그들의 意識生活을 어떻게 影響지을 것인가

價值基準이 確立되지 못한 靑少年들에게는 이와같은 不健全한 消費行態가 오히려 正常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한편으로는 크고 反面에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消費行脚에 대하여 크게 반발과 反抗을 느껴 오히려 그들이 健全한 消費生活을 영위하는데 逆機能的 役割을 하여 모든 消費를 罪惡視하는 극단으로 흐를 可能性도 없지 않을 것이다.

1980年代를 내다보며 韓國人の 意識構造를 서어베이한 어느 調査의 分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消費할줄 모르고 사치할줄만 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性向은 靑少年들에게도 그대로 답습되어 大量消費時代가 그야말로 消費의 時代라기보다 사치의 時代로 誤認될 可能性마저 없지않은 것이다. 經濟發展의 必然的 段階로서 大量消費時代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福祉를 向上시켜 줄수 있는 消費經濟이기를 바라며, 있는자와 없는者間의 社会的 均衡을 깨는 不平等經濟의 時代가 되지않기를 원하는 것이다.

셋째 大量消費時代는 한편 大量生産時代를 意味한다. 1909年 美國의 自動車王 헨리포드는 웬만한 월급장이라면 누구나 그의 家族과 더불어 神이 創造한 이 地球의 모든 곳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값싸고 信用있는 自動車를 開發하여 生産하는 것이 자기의 目標라고 主張하였고 이것은 大量生産體制의 정비에 의하여 可能하였다. 왜냐하면 大量生産體制는 專門化, 分業化를 통하여 規模의 經濟를 건울 수 있음을 意味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大量消費의 前提가 되는 大量生産은 生産單位의 大型화와 더불어 嚴格한 分業化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工場에서 일하는 勤勞者들 自然히 하나의 人格을 갖춘 人間으로서 보다는 生産過程에 必要한 無人格的 因子에 不過하게 取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같이 生産에 必要한 勤勞者는 資本과 어느정도 代替關係에 있다고 생각되어 賃金이 相對的으로 資本의 價格보다 더 많이 引

上되면 언제라도 資本으로 代替될 수 있는 生産要素로서 取扱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勤勞者는 機械가 아니며 機械처럼 아무런 目的意識이 없이 피동적으로만 움직이는 生産要素는 絶대로 아닌 것이다. 따라서 大量生産過程에서 勤勞者들의 生産性を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賃金등의 金錢的 誘因뿐만 아니라 갖가지 非金錢的 誘因의 導入이 絶대로 必要한 것은 歐美의 경우 이미 1930年代부터 研究의 結果로 잘 나와 있는 것이다.

더구나 大量生産方法이 靑少年의 意識生活에 미치는 効果는 매우 클 것으로 予想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에 全國의 就業者는 1349萬名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서 14才未滿의 勤勞者는 全體의 0.6%인 7萬8千名이었으며 15才부터 19才가 10%인 134萬6千名, 20~24才가 12.6%인 169萬5千名 그리고 25~29才가 11.5%인 154萬7千名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15才부터 19才까지 이르는 年令層의 32.5%가 就業하고 있으며 20~24才層은 54.3%가 就業中이고 그리고 25~29才層은 61.7%가 就業하고 있는 것을 意味한다. 20)

이처럼 該当年令階層의 50%以上이 훨씬 넘는 20才 以後의 靑年들이 就業하고 있으며 20才 以前의 靑少年들도 30% 以上이 就業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니와 이들의 大部分은 大量生産의 主要因子로서 工場의 機械와 같은 生活을 每日 每日 반복하고 있을 것이 틀림이 없다.

이들에게 統一後繼世代로서의 責任意識을 불어넣어주고 이러한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의 勤勞條件에 만족하고 이것이 統一韓國의 勤勞條件이 되어야 한다는 自負心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措置가 必要할 것임에는 이론의 餘地가 없다. 이들이 確固한 作業倫理를 갖고 자기 職業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大量生産下의 靑少年들에게 民族心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方法이기도 하다.

5. 맺 음 말

1962년에 第1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이 실시된 이후 1978년까지 韓國經濟는 年平均 10%의 實質成長率을 記錄하여 80 달러에 不過하던 一人当國民所得은 1,250 餘달러 (經常價格表示)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經濟가 高度로 急激히 發展함에 따라 國民들의 消費生活도 적지않게 變모하여 갔다.

뿐만 아니라 國內에 賦存資源이 희소하고 內需市場의 規模가 협소한 經濟條件下에서 어쩔수 없이 扞하지 않을 수 없었던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은 우리나라 經濟의 開放度를 점차로 增加시켰다. 1962년에 不過 23%이던 GNP에 占하는 輸出入의 比率은 1978년에 77%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經濟가 급격히 國際化過程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자 一般市民들의 生活은 우리들의 生活水準보다 훨씬 높은 先進外國人들의 生活樣式의 展示效果를 接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機會가 점차로 높아져 갔다.

一般的으로 經濟가 급속히 成長하고 國民들의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基本的인 生計에 必要的한 食料品等의 比重은 점차로 감소하고 耐久消費財를 비롯하여 教育費를 包含하는 雜費의 比重이 크게 增加하게 된다. 특히 大量消費時代에 이르면 耐久消費財의 需要가 크게 增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經濟가 도약단계를 거친 것만은 사실이나 아직도 W.Rostow의 第5段階인 大量消費時代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特定の 耐久消費財의 家口普及率을 살펴보면 大量消費時代의 特徵과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1978年 現在 라디오의 家口普及率은 99%이며 TV普及率의 7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 있고 乘用車의 家口普及率도 5.3%에 이르고 있다.

韓國에서도 耐久消費財에 대한 所得彈力値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3년부터 1975年間の 時系列資料를 利用하여 測定한 耐久消費財의 所得彈力値는 1.7로 그 어느 消費品目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參考로 教育費의 所得彈力値는 1.6이었음)

이와 같이 높은 所得彈力値는 특히 個人當所得의 增加가 顯赫하였던 1976~78年間に 耐久消費財에 대한 需要가 적지 않았음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耐久消費財에 대한 需要의 增加는 이러한 財貨를 즐길수 있는 時間 即 余暇에 對한 需要를 유발하여 時間을 節約시키는 各種 서어비스部門을 발달시키고 生活情報를 신속히 알려주는 情報서어비스分野를 발전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部門의 몇가지 例를 들어본다면 우선 新聞의 購売部數를 들 수 있다. 經濟企劃院의 集計에 의하면 1977年 354萬部였던 新聞購読部數는 1978年에 13%以上이 增加한 400萬餘部로 家口普及率도 51%에서 57%로 擴大되었다. 郵便物의 境遇는 1970年에 接受件數가 5億7千萬件으로 1人當 利用回數가 18回로 나타났으나 1978년에는 8億8千萬件에 1人當

2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70년에 48万余대에 不過하던 電話는 家口普及率도 8.2%였으나 1978년에는 183万台에 家口普及率은 25%로 增加되어 情報서비스의 拡大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W.Rostow도 大量消費時代に 이르면 國民經濟를 先導하는 産業은 耐久消費財産業과 서비스部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段階에 이룰때 社會는 그 目標를 技術의 發展을 통한 經濟成長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社會保障, 医療서비스, 各種 福祉事業에 社會資源을 더 投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福祉國家의 出現과 더불어 耐久消費財의 生産과 서비스는 大規模로 拡大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Rostow의 主張이었다.

이와 같은 大量消費時代의 돌입은 消費經濟體制가 先進化 或은 西歐化 되어가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境遇를 살펴 보면 消費率이 1961년의 96%로부터 1970년에 84% 그리고 1978년에 74%로 繼續 減少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最近까지만 하더라도 日本等 先進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비슷한 後進國들 보다는도 消費率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와 같이 높은 民間消費支出의 構成은 점차로 食料品支出에 압도되어 恩賜係數가 높았던 後進的 消費패턴이 점차로 사라져 가고 다른 消費品目的 比重이 높아져 가면서 先進型 消費패턴에 接近하여 西歐型 消費經濟에 돌입하는 樣相을 나타내는 것을 意味한다.

耐久消費財가 所得에 占하는 比重을 年齡別, 所得階層別로 살펴보

면 25歲~29歲間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며 24歲以下도 4.7%로서 40歲以上の 年齡層보다 相對적으로 더 많은 所得의 比重을 이에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低所得層보다는 中間所得層 그리고 中間所得層보다는 高所得層이 所得에 占하는 耐久消費財의 比重이 큰 것으로 判明되고 있다.

하여튼 耐久消費財의 大量生産과 普及이 하나의 指標가 되는 消費經濟時代의 消費(그 水準과 構造)는 무엇에 의하여 影響이 지워지는가? 古典學派와 新古典學派의 經濟學者들은 이것이 주로 利子率에 의하여 決定이 된다고 여겼었다. 그들은 貯蓄은 利子率의 函數라고 여겼으며 貯蓄이란 消費와 더불어 所得을 構成하는 重要한 變數일진대 貯蓄이 利子率에 의하여 그 規模가 결정되면 주어진 所得에서 貯蓄을 制限 消費도 利子率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eynes는 이러한 古典派 經濟論理에 반기를 들었다. 오히려 消費는 所得이 늘어날때 增加한다는 消費函數가 그의 理論의 骨子였다. Keynes의 消費函數理論은 그후 相對所得假說을 비롯하여 永久所得假說 그리고 라이프사이클(Life-cycle)假說등으로 展開되었기는 하였지만 하여튼 人間은 누구나 所得이 增加할 때에 消費를 增加시키려는 性向을 보이고 있는 것만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高度의 經濟成長率이 오랫동안 持續되면서 個人當 國民所得이 增加하게 되자 消費가 增加하고 이러한 消費의 패턴은

所得의 增加와 더불어 食料品の 比重이 줄어들고 耐久消費財등에 대한 需要를 增加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耐久消費財産業을 살펴볼 때 이러한 産業의 기틀은 1962年以後에 세워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財貨에 대한 消費의 增加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輸入에 의하여 充當되었다. 勿論 外換의 不足으로 耐久消費財의 輸入은 抑制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으나 美軍PX나 移舍집등을 통하여 輸入된 耐久消費財의 展示效果는 消費者들에게 적지않은 影響을 미치었다.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以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耐久消費財産業은 각기 다른 패턴을 그리면서 成長 發展하여 왔다. 이들 財貨에 대한 需要가 폭발한 1977年과 1978年은 中東붐의 여파로 国内景氣가 好況을 누리던 期間이었다.

이 期間동안에 家庭用 電氣機器는 二倍以上의 生産增加를 보였고 内需現況은 大略 다음과 같이 變化하였다. 即 1977年과 比較할 때 1978年에는 冷蔵庫가 136%, 洗濯機가 123%, 에어컨은 113% 그리고 扇風機는 68%의 增加하였고 1978년에 이르러 이러한 家庭用 電子製品의 家口普及率은 冷蔵庫가 24%, 洗濯機가 7.5%, 扇風機는 85% 그리고 에어컨이 1.3%로 擴大되었다.

1978년에 이르러서 家庭用 電子機器의 生産도 42%나 伸張하였는데 이는 輸出보다 内輸增大에 따른 것으로 알 수 있다. 黑白 TV의 生産은 44%가 增加하였으며 錄音機가 66%, 電子時計가 71%씩 增加하였고 黑白 TV의 内需는 9%, 錄音機가 127%, 電蓄이

408%, 그리고 508%씩 증가하였다

黑白TV의 家口普及率이 1978년에 71%에 이르렀고 라디오는 99%에 이르러 全人口가 모두 라디오의 惠沢을 보고 있으며 全人口의 約 4分の3이 TV의 惠沢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8年 現在 乗用車의 家口普及率은 5.3%로 約 38万5千台의 乗用車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大部分의 1,400 cc以下の 小型 乗用車들이다. 例로 1978年 한해 동안에 販賣된 乗用車 84,400余台 가운데서 브리사(Brisa)가 16,500余台, 제미니(Gemini)가 7,300余台 그리고 포니(Pony)가 49,000余台로서 小型乗用車는 72,800余台에 이르러 全体 乗用車의 86% 1,400 cc以下の 小型 乗用車인 것이 판명되었다. 1978年 全体 自動車(15万3,900余台)에 占하는 乗用車의 比率은 55%에 이르렀다.

1977~78年間の 乗用車 販賣는 4万1,700余台로부터 8万4,400余台로 増加하여 102%의 増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1977~78年間の 所得増大가 自動車 需要에 미친 効果가 매우 컸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耐久消費財는 需要와 供給의 兩側面에서 급격한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70年代 後半期에 이르러 中東붐을 타고 韓國經濟가 急激히 成長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個人当所得이 増加함에 따라 耐久消費財에 대한 需要가 急増하였고 이것은 大量消費時代가 韓國에도 到來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信號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耐久消費財에 의하여 暗示되고 있는 大量消費時代

의 消費經濟가 靑少年들의 意識生活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一般的으로 消費經濟體制는 經濟의 急速한 發展에 의하여 可能하였고 이러한 經濟發展의 目標는 西歐先進經濟를 追求하여 가는데 두었었으므로 經濟發展을 통한 近代化는 同時에 西歐化를 意味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西歐化한 近代化 過程에서 西歐式 物質萬能主義가 社會의 各 階層에 스며들게 되고 이것은 다시 靑少年들의 意識形成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對外指向的 開發政策의 여파로 韓國經濟가 國際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濟를 필두로 社會 各 分野에서의 國際的 交流는 先進西歐 物質文明의 惠沢과 피해가 同時에, 아주 짧은 時差를 두고 韓國社會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展示效果는 消費를 조장시켰고 이것은 民族統一이 至上課業이 되어야 할 靑少年들의 意識을 다른 곳으로 分散시키는 役割을 担当하기도 하였다.

民族統一이라는 民族的 要請에 부응할 수 있는 民族主義的 自覺心을 靑少年들이 갖일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消費經濟體制가 그 民族的 要求와 相衡되지 않고 서로 補完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한 오늘날의 經濟條件과 이에서 派生된 消費經濟體制를 버리고 다시 옛 狀態로 되돌아 갈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어진 條件아래서 이러한 體制가 “民族統一에 反”하는 것이 아니라 “民族統一을 為”할 수 있는 方案의 모색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不健全한 消費生活에서부터 오는 靑少年들의 退廢相이나 或은 反感동은 民族的 要求와 크게 상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消費生活은 하루 速히 淨化될 수 있는 方策도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兪하여 있는 消費經濟體制를 도저히 다시 돌려버리거나 다른 體制로 바꿀 수 없는 한, 우리들은 이 틀안에서 健全한 生活과 民族統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國民들이 合意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體制를 構築하여 갈 必要가 있는 것이다.

消費經濟體制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大量消費時代는 大量生産을 前提로 하고 있다. 大量生産이란 生産에 參與하는 勞動을 하나의 人格을 지닌 人間으로보다는 오히려 生産過程에 마치 機械가 必要하듯이 하나의 人格없는 生産要素로 取扱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와 같이 단조로우고 메마른 生産過程에 종사하는 靑少年들이 어떻게 民族主義的 要請에 부응할 수 있는 意識形成이 可能할 수 있을까?

勤勞靑少年들이 民族的 要求에 積極的으로 부응할 수 있는 意識은 形成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社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希望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 社會에 대하여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兪해 있는 勤勞場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大量生産에 參與하고 있으면서도 個個人의 人格을 尊重받는 勞使關係가 確立될 때 그들은 그들이 擄取의 대상이 아니라 經濟發展에 기여하는 生産에 參與하고 있다는 自負心을 갖도록 될 것이기 때문이

다.

第1次 5個年開發計劃 當時만 하더라도 後進國中의 後進國으로 낙인
찍혀 希望이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가 불과 15年만에 經濟的 跳躍
段階를 넘어 비슷한 위치에 있던 대부분의 後進國들을 뒤로 하고
中進國으로 부상하였다. 國民的 貧困脫出에 급급하였던 우리나라는
불과 15年만에 大量消費時代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耐久消費財
의 大量生産과 內需擴大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民族的 宿願은 이루어지지 않고, 現世代
보다는 後繼世代들에게 막중한 課業이 인계되어야 할 時點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이를 担当하여야 할 靑少年들의 精神的 姿勢와 民族
主義的 意識은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消費經濟體制로부터 연유하고
있는 갖가지 腐害로부터 影響을 받아 西歐化된 價值觀과 民族主義
의 要求 사이에 적지 않은 乖離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 같다.

消費經濟體制를 버릴 수 없는 한, 이를 포용하면서 統一의 後繼
世代로서 靑少年들이 民族統一을 위한 굳건한 自覺과 意識形成을
기할 수 있도록 올바른 土견을 마련해 줄 時點에 우리는 와있는
것이다.

参 考 文 献

- C.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MacMillan Co., London, 1940)
- W.G. Hofman, Stadien und Typen der Industrialisierung (Jena, 1931)
- S. Kuznet,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6)
- S. Kuznet, Post-war Economic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4)
- S. Kuznet, Six Lectures on Economic Growth (Free Press, Glencoe, 1959)
- Jean Fourastie, Le grand espoir du XX^e siècle (Paris, 1963)
-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2)
- W. Rostow, Politics and the Stages of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1)
-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Harcourt, Brace & World, London, 1936)
- D.S. Brady and R. Friedman, "Savings and Income Distribution,"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47), pp. 247-65.

- F. Modigliani, "Fluctuations in the Savings-income ratio: A Problem in Economic Forecasting," Ibid (1949), pp. 371-443.
- G. Duesenberry,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ur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49)
- M. Friedma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57)
- F. Modigliani and A. Ando, "Tests of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19 (1957), pp. 99-124.
- F. Modigliani and R.E. Brumberg,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North-Holland Publishing Co., Amsterdam, 1954)
- Robert Ferber, "Research and Household Behaviou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2 (1962), pp. 19-63.
- J.K.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2nd ed., (Penguin Books, London, 1977)
- E.J. Mishan, The Economic Growth Debate, An Assessment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77)
- P. Musgrove, Consumer Behavior in Latin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8)

韓國開發院，長期經濟社會發展，1977～91年。

辺衡尹・金潤煥編，韓國經濟論（裕豐出版社，1977）。

韓國產業銀行 調查月報（1979. 2）。

經濟企劃院，都市家計年報（各年度）

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1979）。

經濟企劃院，產業生產年報（各年度）。

韓國產業銀行，韓國의 產業（各年度）。

全國經濟人聯合會，韓國經濟年鑑（各年度）

金榮奉，纖維・電子工業의 特性斗 需要構造，（韓國開發研究院，1979）。

三星電氣株式會社，家庭用 機器工業의 長期展望 1977～91。

註

- 1) 이러한 패턴에 관한 著作들은 다음을 参照할 것.
W.G.Hofman, Studien und Typen der Industrialisierung, (Jena, 1931),
C.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Macmillan Co., London 1940),
S.Kuznet, Six Lectures in Economic Growth, (Free Press, Glencoe, 1959),
S.Kuznet, Post-war Economic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S.Kuznet,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Yale University Press, 1966).
- 2) Jean Fourastie, Le grand espoir du XX^e siècle, (Paris, 1963), pp.215-18.
- 3) W.W.Rostow,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2), pp.4-11.
- 4) Ibid, pp.10-11, pp.73-87.
- 5) Ibid, 특히 pp.73-74.
- 6) KDI, 長期經濟社会發展 1977~91年, pp.47~49 本稿에서의 展望値는 주로 上記 報告書에 依存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以後 資料出處를 밝힐 것임.

- 7) 이 韓國의 所得彈力性은 1963年~1975年間 時系列資料를 利用하여 導出하였음, 薛鳳植 “韓國家計의 消費行爲”를 “韓國家計의 消費構造와 貯蓄行態”, 韓國産業銀行 調查月報(1979年2月号) 279号 p.11에서 再引用.
- 8) 産銀調查月報 297号 “韓國家計의 消費構造와 貯蓄行態”, p.11.
- 9) Ibid, p.12에서 再引用.
- 10) Ibid, p.18에서 再引用.
- 11) J.M.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Harcourt, Brace & World, 1936), p.96.
- 12) D.S.Bredy and R.Friedman, “Saving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47), pp.247~65.
- F.Modigliani, “Fluctuations in the Savings-income ratio : A Problem in Economic Forecast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1949), pp.371~443.
- J.Duesenberry,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ur,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49).
- 13) M.Friedma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rinceton Univer-

sity Press, 1957),

F.Modigliani and A.Ando, "Tests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s" Oxford Bulletin Vol.19(1957), pp.99~124.

F.Modigliani and R.E.Brumberg,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K.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North-Holland Publishing Co., Amsterdam, 1954), pp.388~436.

14) 社会經濟的 特性이 消費行態에 미치는 効果의 서어비스는 다음을 参照할 것.

Robert Ferber, "Research on Household Behaviou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2(1962), pp.19-63.

15) 動力資源部

16) W.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2), pp.4~11.

17) J.K.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Penguin Books, London, 1967), 특히 pp.49~51.

18) Harvey Leibenstein, "Bandwagon, Snob and Veblen Effects in the Theory of Consumers Deman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LXIV(May, 1950), pp.183-207.
reprinted in D.R.Kamerschen ed., Reachings in Micro-

economic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69), pp. 95 ~

119 특히 pp. 100 ~ 102 参照,

19) 서울대학교 社会科学研究所 및 東亞日報社 “80年代 意識構造”

東亞日報 (1980年1月1日号)

20) 人口 및 就業者에 관한 統計는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1979),

p. 340, p. 352.

경 상 시 장 가 격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금 액

농업·임업 및 어업	206.02	321.00	309.12	365.15	399.26	455.18	597.
어업	5.12	9.54	13.62	16.66	24.03	29.87	34.
광업 및 채석업	8.16	12.07	14.77	16.45	20.65	20.49	23.
제조업	73.14	111.09	143.88	190.94	239.17	327.48	430.
건설업	14.70	20.21	27.64	37.94	49.48	78.79	121.
전기·수도 및 위생사업	5.12	6.60	10.26	14.13	17.82	23.49	32.
통신업	4.37	5.73	9.18	12.81	15.94	20.53	28.
운수·보관 및 통관업	19.90	23.91	32.14	50.73	71.92	100.27	124.
운수·보관업	17.07	19.99	27.00	40.32	59.53	82.89	106.
도매 및 소매업	61.92	85.02	120.14	160.74	210.94	258.39	343.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7.45	9.93	12.75	16.81	21.47	30.54	41.
주택소유	21.78	25.31	27.99	33.42	43.72	49.55	55.
공공행정 및 국방업	28.08	33.64	39.94	53.84	67.15	85.64	107.
서비스업	38.94	46.17	59.04	78.93	106.42	145.04	179.
교육서비스업	13.30	14.49	15.81	23.69	31.81	49.55	56.
해외부문	3.33	5.25	7.65	13.38	21.95	23.18	25.
국민총생산	488.54	700.20	805.32	1032.45	1269.95	1598.04	2081.

농림어업	206.02	32.00	309.12	365.15	399.26	455.18	597.
비농림어업	282.52	379.20	496.20	459.91	870.69	1142.86	1484.
광업	81.30	123.16	158.65	207.39	259.82	347.97	454.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201.22	256.04	337.55	459.91	610.87	794.89	1029.

구 성 비

농업·임업 및 어업	42.2	45.9	38.4	35.4	31.4	28.5	28
어업	1.0	1.4	1.7	1.6	1.9	1.5	1
광업 및 채석업	1.7	1.7	1.8	1.6	1.6	1.3	1
제조업	14.9	15.9	17.9	18.5	18.8	20.5	20
건설업	3.0	2.9	3.4	3.7	3.9	4.9	5
전기·수도 및 위생사업	1.0	0.9	1.3	1.4	1.4	1.5	1
통신업	0.9	0.8	1.1	1.2	1.3	1.3	1
운수·보관 및 통관업	4.1	3.4	4.0	4.9	5.7	6.3	6
운수·보관업	3.5	2.9	3.4	3.9	4.7	5.2	5
도매 및 소매업	12.7	12.1	14.9	15.6	16.6	16.2	16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1.5	1.4	1.6	1.6	1.7	1.9	2
주택소유	4.5	3.6	3.5	3.2	3.5	3.0	2
공공행정 및 국방업	5.7	4.8	5.0	5.2	5.3	5.4	5
서비스업	8.0	6.6	7.3	7.6	8.4	9.1	8
교육서비스업	2.7	2.1	2.0	2.3	2.5	3.1	2
해외부문	0.7	0.8	0.9	1.3	1.7	1.4	1
국민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농림어업	42.2	45.9	38.4	35.4	31.4	28.5	28
------	------	------	------	------	------	------	----

Amount in billion
Composition in per

At current market prices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b)}	
AMOUNT								
724.59	910.74	1,094.62	1,254.56	1,686.76	2,302.85	3,014.44	3,601.21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46.43	61.39	70.35	122.95	126.18	197.00	260.43	336.79	Fishing
30.73	34.18	37.93	48.13	71.19	116.54	123.78	182.84	Mining and quarrying
560.01	685.07	902.99	1,290.12	1,891.59	2,580.59	3,643.63	4,395.13	Manufacturing
150.20	166.85	179.11	237.67	303.37	416.00	555.64	870.50	Construction
45.00	52.48	76.23	85.42	75.68	122.58	176.57	271.67	Electricity, water and sanitary services
39.45	44.84	62.45	70.06	55.81	100.38	147.89	233.67	Electricity and gas
149.66	181.35	223.05	299.18	390.27	511.43	673.50	858.13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123.46	150.11	184.25	252.43	321.46	404.51	514.65	619.71	Transport and storage
428.61	521.78	647.93	903.75	1,256.96	1,636.35	1,930.17	2,388.31	Wholesale and retail
56.93	74.63	86.54	108.34	164.77	224.83	286.59	387.42	Banking, insurance and estate
62.87	73.52	83.52	95.28	125.85	164.20	204.07	258.18	Ownership of dwelling
138.07	168.02	199.46	244.36	289.36	396.45	586.90	787.90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230.69	285.19	343.49	401.82	556.90	767.36	1,083.54	1,314.74	Services
77.93	95.14	120.83	138.54	200.66	297.85	515.58	664.58	Education
11.90	- 2.26	- 15.32	- 37.00	- 65.63	- 158.85	- 135.47	- 75.63	Rest of the world
2,589.26	3,151.55	3,860.00	4,901.63	6,747.07	9,080.33	12,143.36	15,240.40	Gross national product
724.59	910.74	1,094.62	1,254.56	1,686.76	2,302.85	3,014.44	3,601.21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1,864.67	2,240.81	2,765.38	3,647.07	5,060.31	6,777.48	9,128.92	11,639.19	Other sectors
590.74	719.25	940.92	1,338.25	1,962.78	2,697.13	3,767.41	4,577.97	Mining and manufactur:
1,273.93	1,521.56	1,824.46	2,308.82	3,097.53	4,080.35	5,361.51	7,061.22	Others
COMPOSITION								
28.0	28.9	28.3	25.6	25.0	25.4	24.8	23.7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1.8	1.9	1.8	2.5	1.9	2.2	2.1	2.2	Fishing
1.2	1.1	1.0	1.0	1.1	1.3	1.0	1.2	Mining and quarrying
21.6	21.7	23.4	26.3	28.0	28.4	30.0	28.8	Manufacturing
5.8	5.3	4.6	4.9	4.5	4.6	4.6	5.7	Construction
1.7	1.7	2.0	1.7	1.1	1.3	1.5	1.8	Electricity, water and sanitary services
1.5	1.4	1.6	1.4	0.8	1.1	1.2	1.5	Electricity and gas
5.8	5.8	5.8	6.1	5.8	5.6	5.5	5.6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4.8	4.8	4.8	5.1	4.8	4.5	4.2	4.1	Transport and storage
16.6	16.6	16.8	18.4	18.6	18.0	15.9	15.7	Wholesale and retail t
2.2	2.4	2.2	2.2	2.4	2.5	2.4	2.5	Banking, insurance and

39.45	44.84	62.45	70.06	55.81	100.38	147.89	233.67	sanitary services
149.66	181.35	223.05	299.18	390.27	511.43	673.50	858.13	Electricity and gas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123.46	150.11	184.25	252.43	321.46	404.51	514.65	619.71	Transport and storage
428.61	521.78	647.93	903.75	1,256.96	1,636.35	1,930.17	2,388.31	Wholesale and retail
56.93	74.63	86.54	108.34	164.77	224.83	286.59	387.42	Banking, insurance and estate
62.87	73.52	83.52	95.28	125.85	164.20	204.07	258.18	Ownership of dwelling
138.07	168.02	199.46	204.36	289.36	396.45	586.90	787.90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230.69	285.19	343.49	401.82	556.90	767.36	1,083.54	1,314.74	Services
77.93	95.14	120.83	138.54	200.66	297.85	515.58	664.58	Education
11.90	- 2.26	- 15.32	- 37.00	- 65.63	- 158.85	- 135.47	- 75.63	Rest of the world
2,589.26	3,151.55	3,860.00	4,901.63	6,747.07	9,080.33	12,143.36	15,240.40	Gross national product
724.59	910.74	1,094.62	1,254.56	1,686.76	2,302.85	3,014.44	3,601.2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864.67	2,240.81	2,765.38	3,647.07	5,060.31	6,777.48	9,128.92	11,639.19	Other sectors
590.74	719.25	940.92	1,338.25	1,962.78	2,697.13	3,767.41	4,577.97	Mining and manufacturing
1,273.93	1,521.56	1,824.46	2,308.82	3,097.53	4,080.35	5,361.51	7,061.22	Others
COMPOSITION								
28.0	28.9	28.3	25.6	25.0	25.4	24.8	23.7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8	1.9	1.8	2.5	1.9	2.2	2.1	2.2	Fishing
1.2	1.1	1.0	1.0	1.1	1.3	1.0	1.2	Mining and quarrying
21.6	21.7	23.4	26.3	28.0	28.4	30.0	28.8	Manufacturing
5.8	5.3	4.6	4.9	4.5	4.6	4.6	5.7	Construction
1.7	1.7	2.0	1.7	1.1	1.3	1.5	1.8	Electricity, water and sanitary services
1.5	1.4	1.6	1.4	0.8	1.1	1.2	1.5	Electricity and gas
5.8	5.8	5.8	6.1	5.8	5.6	5.5	5.6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4.8	4.8	4.8	5.1	4.8	4.5	4.2	4.1	Transport and storage
16.6	16.6	16.8	18.4	18.6	18.0	15.9	15.7	Wholesale and retail
2.2	2.4	2.2	2.2	2.4	2.5	2.4	2.5	Banking, insurance and estate
2.4	2.3	2.2	2.0	1.9	1.8	1.7	1.7	Ownership of dwelling
5.3	5.3	5.2	4.4	4.3	4.4	4.8	5.2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8.9	9.0	8.9	8.2	8.3	8.4	8.9	8.6	Services
3.0	3.0	3.1	2.8	3.0	3.3	4.2	4.4	Education
0.5	-0.1	-0.4	-0.8	-1.0	-1.7	-1.1	-0.5	Rest of the world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Gross national product
28.0	28.9	28.3	25.6	25.0	25.4	24.8	23.7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72.0	71.1	71.7	74.4	75.0	74.6	75.2	76.3	Other sectors
22.8	22.8	24.4	27.3	29.1	29.7	31.0	30.0	Mining and manufacturing
49.2	48.3	47.3	47.1	45.9	44.9	44.2	46.3	Others

Source: The Bank of Korea

	경 상 시 장 가 격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금 액						
민 간 소 비 지 출	403.31	586.31	668.80	805.18	985.97	1204.44	1493.65
일 반 정 부 소 비 지 출	54.74	61.95	76.02	104.82	132.17	175.28	222.69
국 내 총 고 정 자 본 형 성	68.04	81.44	119.17	208.69	272.96	411.66	552.94
재 고 증 가	22.22	29.80	2.81	15.79	8.01	16.21	67.76
재 화 와 비 요 소 용 역 의 수 출	23.76	42.06	68.61	106.81	144.61	209.30	287.81
(공제)재 화 와 비 요 소 용 역 의 수 입	79.45	96.44	127.79	207.82	279.42	416.81	541.86
통 계 상 불 일 치	-7.41	-1.17	-9.95	-14.40	-16.30	-25.22	-26.50
국 내 총 생 산 에 대 한 지 출	485.21	694.95	797.67	1019.07	1248.00	1574.86	2056.49
해 외 순 수 취 요 소 소 득	3.33	5.25	7.65	13.38	21.95	23.18	25.03
국 민 총 생 산 에 대 한 지 출	488.54	700.20	805.32	1032.45	1269.95	1598.04	2081.52
(공제)간 접 세	30.94	33.92	47.13	72.31	98.66	147.71	196.90
(가산)보 조 금	0.86	1.06	0.07	0.02	0.01	0.47	0.06
(공제)고 정 자 본 소 모 총 당 금	26.32	37.18	45.91	58.50	75.80	101.73	128.37
국 민 소 득	432.14	630.16	712.35	901.66	1095.50	1349.07	1756.31

	구 성 비						
민 간 소 비 지 출	82.5	83.8	83.1	78.0	77.7	75.4	71.8
일 반 정 부 소 비 지 출	11.2	8.9	9.4	10.2	10.4	11.0	10.7
국 내 총 고 정 자 본 형 성	13.9	11.6	14.8	20.2	21.5	25.8	26.6
재 고 증 가	4.6	3.0	0.3	1.5	0.6	1.0	3.2
재 화 와 비 요 소 용 역 의 수 출	4.9	6.0	8.5	10.3	11.4	13.1	13.8
(공제)재 화 와 비 요 소 용 역 의 수 입	16.3	13.8	15.9	20.1	22.0	26.1	26.0
통 계 상 불 일 치	-1.5	-0.2	-1.2	-1.4	-1.3	-1.6	-1.3
국 내 총 생 산 에 대 한 지 출	99.3	99.3	99.0	98.7	98.3	98.6	98.8
해 외 순 수 취 요 소 소 득	0.7	0.7	1.0	1.3	1.7	1.4	1.2
국 민 총 생 산 에 대 한 지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제)간 접 세	6.3	4.6	5.9	7.0	7.7	9.2	9.2
(가산)보 조 금	0.2	0.2	0.0	0.0	0.0	0.0	0.0

< 부록 2 - 2 >

Expenditure on Gross National Product

Amount in billion won
Composition in percent

At current market prices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AMOUNT								
1,884.25	2,337.32	2,844.45	3,338.71	4,702.98	6,424.21	7,947.46	9,517.28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281.81	355.96	438.24	479.35	741.90	1,020.23	1,487.55	1,944.23	General gov't consumption expenditure
650.20	729.72	780.23	1,169.43	1,754.95	2,331.85	2,829.11	3,846.51	Gross domestic fixed capital formation
54.46	75.63	25.25	119.46	347.11	146.54	209.73	146.18	Increase in stocks
381.23	514.21	813.81	1,577.72	2,071.19	2,748.44	4,409.63	6,053.80	Exports of goods and non-factor services
642.44	865.95	1,013.52	1,739.64	2,916.35	3,612.58	4,594.71	6,064.76	Less imports of goods and non-factor services
- 32.15	6.92	- 13.14	- 6.40	110.92	180.49	- 9.94	- 127.21	Statistical discrepancy
2,577.36	3,153.81	3,875.32	4,938.63	6,812.70	9,239.18	12,278.83	15,316.03	Expenditure on gross domestic product
11.90	- 2.26	- 15.32	- 37.00	- 65.63	- 158.85	- 135.47	- 75.63	No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2,589.26	3,151.55	3,860.00	4,901.63	6,747.07	9,080.33	12,143.36	15,240.40	Expenditure on gross national product
252.12	297.94	342.83	440.23	689.85	1,103.67	1,599.40	...	Less indirect taxes
0.74	1.53	1.41	17.43	184.89	123.77	172.07	...	Plus subsidies
160.15	192.20	276.71	409.35	600.49	752.28	999.21	...	Less provisions for the

national product									
252.12	297.94	342.83	440.23	539.85	1,103.67	1,599.40	...	Less indirect taxes	...
0.74	1.53	1.41	17.43	184.89	123.77	172.07	...	Plus subsidies	...
160.15	192.20	276.71	409.35	600.49	752.28	999.21	...	Less provisions for the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
2,177.73	2,662.94	3,241.87	4,069.48	5,641.62	7,348.15	9,716.82	...	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	...
COMPOSITION									
72.8	74.2	73.7	68.1	69.7	70.8	65.5	62.4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62.4
10.9	11.3	11.3	9.8	11.0	11.2	12.2	12.8	General govt consumption expenditure	12.8
25.1	23.2	20.2	23.9	26.0	25.7	23.3	25.2	Gross domestic fixed capital formation	25.2
2.1	2.4	0.7	2.4	5.2	1.6	1.7	1.0	Increase in stocks	1.0
14.7	16.3	21.1	32.2	30.7	30.3	36.3	39.7	Exports of goods and non-factor services	39.7
24.8	27.5	26.3	35.5	43.2	39.8	37.8	39.8	Less imports of goods and non-factor services	39.8
-1.2	0.2	-0.3	-0.1	1.6	2.0	-0.1	-0.8	Statistical discrepancy	-0.8
99.6	100.1	100.4	100.8	101.0	101.8	101.1	100.5	Expenditure on gross domestic product	100.5
0.4	-0.1	-0.4	-0.8	-1.0	-1.8	-1.1	-0.5	Ne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penditure on gross national product	100.0
9.7	9.4	8.9	8.9	10.2	12.2	13.2	...	Less indirect taxes	...
0.0	0.0	0.0	0.3	2.7	1.4	1.4	...	Plus subsidies	...
6.2	6.1	7.1	8.3	6.9	10.2	8.2	...	Less provisions for the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
84.1	84.5	84.0	83.1	83.6	79.0	80.0	...	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	...

Source: The Bank of Korea

단위 : 백 억 - 10 억원
구성비 - %

	경 상 시 장 가 격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금 액						
! 간 소 비 지 출	403.31	586.31	668.80	805.18	985.97	1,204.44	1,493
식 료 품	219.88	356.13	374.03	417.72	494.56	577.50	715
음 료 품	15.68	19.50	24.89	32.01	40.18	52.83	72
연 초	11.10	14.57	19.63	23.49	29.70	39.09	56
의 류 · 장 신 구	41.58	49.20	69.51	83.68	103.45	132.32	163
임 료 · 수 도 료	24.86	23.88	31.84	38.16	49.84	56.81	63
광 열 비	17.21	23.19	28.73	41.98	50.98	55.52	68
가 구 시 설 비	9.82	13.97	17.60	28.38	34.56	39.46	45
가 계 운 영 비	4.63	6.71	7.09	8.21	10.49	13.71	15
보 전 · 미 용 비	18.69	21.01	28.48	36.70	47.43	65.89	75
교 통 · 통 신 비	16.99	21.88	27.92	44.27	54.23	72.57	90
유 흥 · 오락 비	15.16	21.64	28.19	34.84	47.71	64.94	82
잡 지 출	7.71	9.63	10.89	15.74	22.84	33.80	43
	구 성 비						
간 소 비 지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 료 품	54.5	60.7	55.9	51.9	50.2	48.0	47.9
음 료 품	3.9	3.3	3.7	4.0	4.1	4.4	4.8
연 초	2.8	2.5	2.9	2.9	3.0	3.2	3.7
의 류 · 장 신 구	10.3	8.4	10.4	10.4	10.5	11.0	11.0
임 료 · 수 도 료	6.2	4.9	4.8	4.7	5.0	4.7	4.2
광 열 비	4.3	4.0	4.3	5.2	5.2	4.6	4.5
가 구 시 설 비	2.4	2.4	2.6	3.5	3.5	3.3	3.0
가 계 운 영 비	1.1	1.2	1.1	1.0	1.1	1.1	1.0
보 전 · 미 용 비	4.6	3.6	4.3	4.6	4.8	5.5	5.0
교 통 · 통 신 비	4.2	3.7	4.2	5.5	5.5	6.0	6.0
유 흥 · 오락 비	3.8	3.7	4.2	4.3	4.8	5.4	5.4
잡 지 출	1.9	1.6	1.6	2.0	2.3	2.8	2.8

At current market

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AMOUNT								
884.25	2,337.32	2,844.45	3,338.71	4,702.98	6,424.21	7,947.46	9,517.28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921.93	1,158.56	1,432.60	1,603.29	2,329.17	3,267.64	3,911.74	4,579.37	Food
94.02	119.59	131.82	153.74	229.96	317.99	383.76	464.35	Beverages
72.44	82.52	105.33	141.52	183.99	236.05	307.30	374.76	Tobacco
211.05	262.92	323.55	430.02	545.46	802.31	1,010.81	1,206.14	Clothing and other personal effects
73.05	85.81	100.85	115.07	150.09	195.83	245.90	309.15	Rent and water charges
87.83	103.96	116.85	139.42	195.40	288.26	328.90	427.44	Fuel and light
51.01	63.67	68.44	94.39	147.36	203.60	264.16	328.27	Furniture, furnishings and household equipment
18.75	21.71	27.58	33.21	48.01	60.98	74.01	83.44	Household operation
88.74	114.12	136.94	167.29	236.78	293.44	364.89	441.52	Personal care and health expenses
07.87	129.08	165.07	191.83	261.22	341.77	402.28	473.47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01.23	123.85	148.91	168.39	231.43	300.73	340.63	419.57	Recreation and entertainment
56.33	71.53	86.51	100.54	144.11	215.61	313.08	409.80	Miscellaneous services
COMPOSITIO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48.9	49.6	50.4	48.0	49.5	49.3	49.2	48.1	Food
5.0	5.1	4.6	4.6	4.9	4.9	4.8	4.9	Beverages
3.8	3.5	3.7	4.2	3.9	3.7	3.9	3.9	Tobacco
11.2	11.3	11.4	12.9	11.6	12.5	12.7	12.7	Clothing and other personal effects
3.9	3.7	3.6	3.5	3.2	3.0	3.1	3.2	Rent and water charges
4.7	4.4	4.1	4.2	4.2	4.5	4.2	4.5	Fuel and light
2.7	2.7	2.4	2.8	3.1	3.2	3.3	3.5	Furniture, Furnishings and household equipment
1.0	0.9	1.0	1.0	1.0	0.9	0.9	0.9	Household operation
4.7	4.9	4.8	5.0	5.0	4.6	4.6	4.6	Personal care and health expenses
5.7	5.5	5.8	5.8	5.6	5.3	5.1	5.0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5.4	5.3	5.2	5.0	4.9	4.7	4.3	4.4	Recreation and entertainment

<부록 4> 民間消費支出의 構成

(相对価格 調整)

(单位 : 1975年 不変 10億원)

	1976		1981		1991		1977~91 年增加率 (%)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穀物	1,571.9	21.19	1,708.9	16.26	2,245.0	9.52	2.4
肉類	408.4	5.51	592.9	5.64	1,165.7	4.94	7.2
蔬菜類	353.8	4.77	487.4	4.64	904.9	3.84	6.5
調味料	226.0	3.05	284.3	2.70	373.1	1.58	3.4
加工食品	130.5	1.76	151.6	1.44	211.8	0.90	3.3
菓子及清涼飲料	104.8	1.41	152.8	1.45	296.9	1.26	7.2
煙草	107.3	1.45	125.8	1.20	181.2	0.77	3.6
酒類	59.6	0.80	73.3	0.70	156.9	0.67	6.7
外食	66.2	0.89	90.7	1.04	205.9	0.87	7.9
住居費	712.9	9.61	1,035.0	9.85	2,567.0	10.46	8.6
家具什器	271.9	3.67	449.1	4.27	1,895.6	8.04	13.8
光熱費	505.6	6.82	793.8	7.55	1,965.8	8.33	9.5
被服費	466.9	6.30	638.3	6.07	1,191.2	5.05	6.4
化粧品類	95.4	1.29	127.6	1.21	212.8	0.90	5.5
裝身具	43.0	0.58	78.2	0.74	422.1	1.79	16.4
醫療費	313.1	4.22	500.5	4.76	1,127.6	4.78	8.9
保健美容費	135.4	1.83	185.7	1.77	402.0	1.70	7.5
教育文房具	556.5	7.50	1,068.5	10.17	2,575.3	10.92	10.8
教養娛樂費	118.0	1.59	184.2	1.75	516.7	2.19	10.3
交通通信費	259.5	3.50	379.2	3.61	719.6	3.05	7.0
具他雜費	910.0	12.27	1,512.3	14.39	4,351.2	18.45	11.0
民間消費支出總額	7,417.0	100.00	10,511.0	100.00	23,588.0	100.00	8.0

< 부록 5 >

民間消費支出의 構成

1975年 不變市場價格

	計	食料品	飲料	煙草	衣類및裝身具	賃料및水道料	光熱費
	Total	Foods	Beverages	Tobacco	Clothing & Other personal Effects	Rent and Water Charges	Fuel & Light
I. 金額: 10 億원 Amount: In billion won							
1962	2,653.01	1,581.97	75.78	48.30	253.62	164.31	112.25
1963	2,730.85	1,568.86	73.17	51.29	256.61	168.42	140.42
1964	2,942.14	1,773.86	66.39	59.96	238.14	173.97	141.97
1965	3,133.33	1,864.88	80.81	78.67	262.94	178.15	140.83
1966	3,331.60	1,947.43	92.09	93.77	262.36	185.46	162.81
1967	3,609.30	2,031.79	113.40	116.75	304.73	192.87	160.04
1968	3,958.03	2,159.07	122.65	129.59	337.43	203.48	167.83
1969	4,328.77	2,312.32	155.74	139.05	380.06	215.49	184.66
1970	4,740.98	2,456.68	198.99	170.06	437.49	229.49	203.29
1971	5,206.33	2,585.73	250.26	193.86	521.88	239.36	216.75
1972	5,513.03	2,719.51	248.72	221.39	571.17	249.13	218.71
1973	6,001.56	2,880.48	299.59	225.16	664.41	259.48	241.44
1974	6,410.12	2,958.66	342.32	262.99	700.78	271.76	254.27
1975	6,801.49	3,058.87	386.09	288.49	731.30	282.31	269.57
1976	7,281.78	3,208.37	428.77	302.14	799.85	298.81	284.45
1977	7,773.13	3,322.24	480.58	322.08	834.62	312.14	313.19
1978	8,521.21	3,415.66	641.36	343.01	892.01	333.22	333.96

資料: 韓國銀行

At 1975 constant market prices

料	光熱費	家具及施設費	家計運営費	保健美容費	交通及通信費	遊興及娯樂費	雜支出	(控除)非居住者純支出 (Less) Net Expenditure of Nonresidents in the Country
	Fuel & Light	Furniture & Household Equipment	Household Operation	Personal Care & Health Expenses	Trans., & Communi- cation	Recreati- on & Ent- ertainme- nt	Miscella- neous services	
	112.25	38.39	27.77	101.94	86.94	91.74	68.14	1.14
	140.42	41.22	28.16	123.60	104.59	102.12	73.27	0.88
	141.97	42.58	29.51	105.51	123.09	110.27	80.98	1.09
	140.83	42.40	27.36	106.43	139.39	131.01	84.71	3.25
	162.81	57.66	27.58	116.13	153.77	140.61	98.20	6.27
	160.04	74.53	31.22	131.64	177.03	161.88	116.02	5.65
	167.83	86.45	36.70	168.07	218.62	194.76	141.33	7.95
	184.66	98.40	37.77	183.07	254.26	217.04	159.26	8.35
	203.29	113.18	41.98	202.48	277.14	245.37	174.07	9.24
	216.75	138.81	47.26	240.91	308.55	277.14	200.45	14.63
	218.71	160.49	53.84	272.18	343.47	292.87	206.99	45.44
	241.44	203.14	58.46	318.12	421.01	333.63	230.27	133.63
	254.27	228.70	62.47	368.23	441.96	343.62	244.01	69.25
	269.57	253.16	68.11	406.26	491.83	358.82	267.42	61.14
	284.45	321.55	71.29	456.02	549.76	387.66	278.72	105.61
	313.19	374.71	75.57	503.70	646.05	416.12	298.38	126.25
	333.96	493.86	79.64	554.97	777.81	456.32	317.90	118.51

Source: The Bank of Korea

< 早 導 6 > 所得階層別 家計の 消費支出構成比

(単位 : %)

	低所得層家計	中所得層家計	高所得層家計
食 料 費	60.5	54.6	48.0
住 居 費	5.7	5.0	5.6
耐 久 財 消 費	(1.2)	(1.8)	(2.9)
光 熱 費	8.0	6.3	5.6
被 服 費	7.0	9.9	11.2
雑 費	18.3	24.9	29.6
教 育 費	(2.9)	(5.5)	(8.2)
計	100.0	100.0	100.0

資料：都市家計年報（1960～1977）

< 부록 7 >

20. 도별 TV 수상기 등록대수현황

	전 국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1970	379,564	241,942	42,232	38,210	3,883	2,423	8,192
1971	616,392	368,484	66,022	58,038	10,147	5,376	14,823
1972	905,363	509,229	106,738	85,492	18,800	10,064	26,792
1973	1,282,122	639,110	179,142	117,320	32,402	18,183	45,212
1974	1,618,617	706,588	196,840	176,759	49,679	28,576	70,559
1975	2,061,072	830,680	234,489	244,985	72,420	45,647	100,680
1976	2,809,131	994,233	325,975	360,687	104,367	74,080	152,256
1977	3,804,535	1,238,176	423,143	505,756	147,768	108,131	231,251
1978	5,135,496	1,535,831	540,726	696,678	220,208	155,972	329,272

資料：經濟企劃院

단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3,883	2,423	8,192	5,157	5,503	23,024	5,666	
	10,147	5,376	14,823	9,548	13,262	43,586	15,467	2,0
	18,800	10,064	26,792	18,158	26,825	75,127	24,345	3,7
	32,402	18,183	45,212	32,314	45,104	121,718	44,705	6,9
	49,679	28,576	70,559	48,096	64,502	166,245	100,066	10,7
	72,420	45,647	100,694	70,411	94,977	213,224	139,011	14,3
	104,367	74,080	152,256	104,806	153,293	305,526	208,636	25,2
	147,768	108,131	231,251	158,191	231,402	423,949	298,700	38,0
	220,208	155,972	329,272	236,587	342,522	591,158	432,766	52,7

RESUME

The Consumer-Society and Its Impact on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by

Seung Soo Han

The paper aims to enquire into the possible arrival of the consumer society in Korea, and its impact on the behaviour and consciousness of the younger generation,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as a future generation.

It has been asserted by W.W. Rostow that, after the stage of take-off, the capitalist economy would embark itself on the path to mass consumption in due course. There have been various signs in Korea that we passed the stage of the take-off in late 1960s and that we are already at the stage of mass consumption. It is indeed found in the paper that the demand for the consumer durables, which are taken as a proxy for the arrival of the consumer society, has been growing fast especially since mid 1970s. The trend will be intensified when the national income increases as it is found that the income elasticity of demand for consumer durables in Korea is rather high.

From the supply side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consumer durables has been particularly noted. Statistics on electric consumer durables such as refrigerator, washing machine, air conditioner and electric fan, electronic consumer durables such as radio, TV, tape recorder and digital clock, and the passenger cars all show that there has been an upsurge of production especially since 1977.

The consumer society in Korea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fast and sustained growth for the last 15 years. The so-called modernisation usually understood as synonymous as westernisation would have no less impact on the younger generation. Of all the impacts, the following three are to be singled out.

Firstly, the consumer society has spread the notion in Korea that consumption is a good thing, subsequently influencing the younger generation that materialism is the final ends that they should aspire to. The society that goes for the materialism and where the betterment was brought about as a consequence of internationalisation of the traditional society exerts a far reaching impact on the future generation, who would be torn between the nationalistic demand, a precondition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the internationalised behaviour,

a condition for the betterment of living condition.

Secondly, it is often shown in the mass consuming society that the so-called non-functional and speculative demand for consumer goods are usually prevalent forms of consumption. This unhealthy way of consumption will exert an influence on the younger generation for them either to view the consumption to be all bad to the extreme, or to behave in the way that the old generation did vis-à-vis consumption, which distorts the right approach to the proper way of consumption.

Thirdly, the mass consumption presupposes the mass production. The mass production assumes that labour is just another factor of production, which has neither the feeling nor personality of its own. For most of the younger generation who are employed in the process of mass production, the working condition should be improved in such a way for them willingly to contribute to the productive force of the society and this will lead to a healthier consumer society, for which the younger generation will have greater affection to preserve.